

경영학석사 학위논문

기업집단의 소유구조 연결망에 관한 연구

-SK를 중심으로-



2013년 8월

부경대학교 경영대학원

경 영 학 과

노 석 민

경영학석사 학위논문

기업집단의 소유구조 연결망에 관한 연구

-SK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홍 재 범

이 논문을 경영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8월

부경대학교 경영대학원

경 영 학 과

노 석 민

노석민의 경영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3년 8월



주 심 경영학박사 류 태 모 (인)

위 원 경영학박사 김 창 완 (인)

위 원 경영학박사 홍 재 범 (인)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2
제2장 이론적 배경	4
제1절 기업집단	4
1. 기업집단의 정의	4
2. 한국 기업집단의 형성	5
제2절 소유구조	10
1. 소유구조의 정의	10
2. 소유구조 이론	11
제3절 소유구조에 대한 선행연구	13
1. 공병호(1995)의 연구	13
2. 강원·신현한·장진호(2005)의 연구	14
3. 강형철·박경서·장하성(2005)	16
4. 김진방(2005)의 연구	17
5. 김현중(2006)의 연구	20
6. 강영철·빈기범·조성훈·윤정선(2007)	22
제4절 소유구조와 사회연결망분석에 대한 연구	24
1. 장덕진(1999)의 연구	24
2. 강민정(2001)의 연구	25
3. 최충규(2008)의 연구	27

제3장 연구방법론	29
제1절 연구표본	29
제2절 연구방법	30
1. 중심성	33
제4장 분석결과	38
제1절 SK 기업집단 현황	38
1. SK의 기업집단 형성 과정	38
2. SK 기업 현황	40
3. SK 소유 현황	44
4. 사업구조	46
제2절 SK 기업집단의 사회연결망 분석 결과	50
1. 연결정도중심성(Degree Centrality)	50
2. 근접중심성(Closeness Centrality)	56
3. 매개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	61
제5장 결론	65
제1절 연구결과 및 시사점	65
제2절 한계 및 향후연구방향	67
<참고문헌>	69
<부 록> 기업집단 SK의 업종별 매출현황	72

<표 목차>

<표 3-1> SK의 기업공개 현황	30
<표 3-2> 중심성 도구의 개념 정리	36
<표 4-1> 기간 별 SK의 재무현황	42
<표 4-2> 4대 기업집단 출자총액 현황	43
<표 4-3> SK의 기업공개현황	44
<표 4-4> SK의 내부지분을	45
<표 4-5> SK의 영위 업종별 매출과 소속회사 현황	47
<표 4-6> SK의 연결정도중심성 측정현황	55
<표 4-7> SK의 근접중심성 측정현황	60
<표 4-8> SK의 매개중심성 측정현황	64
<부표1>	72

<그림 목차>

<그림 4-1> 기간 별 SK의 재무현황	42
<그림 4-2> SK의 지분도	45
<그림 4-3> SK의 연결정도중심성 변화: 내향중심	52
<그림 4-4> SK의 연결정도중심성 변화: 외향중심	52
<그림 4-5> 2012년 연결정도중심성으로 도출한 연결망	53
<그림 4-6> SK의 근접중심성 변화: 내향중심	57
<그림 4-7> SK의 근접중심성 변화: 외향중심	57
<그림 4-8> 2012년 근접중심으로 도출한 연결망	58
<그림 4-9> SK의 매개중심성 변화	61
<그림 4-10> 2012년 매개중심성으로 도출한 연결망	62

국 문 초 록

본 연구의 의의는 SK그룹의 소유구조를 사회연결망 분석 기법을 통해 그 변화의 정도와 특성을 분석해 보았다는 데에 있다.

국내 기업집단의 소유구조에 대한 논의는 오래전부터 진행되었으나, IMF의 환위기를 계기로 사회적 주목을 받게 되었다. 한국 기업에서 소유구조의 문제는 특히 재벌 기업의 소유 집중, 정치, 사회적인 갈등을 불러일으키는데, 소유구조는 주식 소유인의 다양한 지분내역에 관한 것으로 소유구조가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연구 표본으로 선정된 SK그룹은 사업구조의 다각화와 매출액 규모에서 국내 대표 기업집단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시자료를 활용하여 2002년, 2007년, 2012년 SK그룹의 사업전개와 소유구조를 분석하였으며, SK그룹의 소유구조 변화를 살펴보기 위한 방법으로 사회학 분야에서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는 사회 연결망 분석기법(Social Network Analysis)을 적용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주요 지표는 연결정도중심성(degree centrality), 근접중심성(closeness centrality), 매개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이다.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다각화하며 사업구조를 재편하던 SK그룹은 소비자와 같은 외국자금의 공격을 대비하고 회사가치를 올리기 위해 최태원 회장의 지분 확보를 해야 했으며, 그 과정에서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이 지배력 강화에 중요한 전략이었다. 지주회사 체제의 SK그룹은 소유구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도입한 지주회사제도가 오히려 지배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비춰지는 문제를 갖고 있다. 적은 지분으로 다각화 된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고 출자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총수는 유동성 위험관리와 함께 합리적인 자본 조달 방법을 고민해야 하겠다.

Ownership-Network Analysis On SK Business Group
-focused on SK Business Group-

Seok Min Noh

*Major in Business Management,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Discussions over the ownership structure of Korean business groups started long ago, but it was not until the Asian financial crisis that the ownership structure attracted social attention. The ownership structure of Korean companies causes the concentration of ownership in conglomerates and political and social conflicts. The ownership structure, which is concerned with owners' stakes, is significant in that it affects the value of the company.

The SK Group, selected as the sample of this research, is a representative Korean business group in terms of the diversification of business structure and the amount of sales. This study analyzed the business development and ownership structure of the SK Group in 2002, 2007, and 2012 using the data releas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It also examined changes in the ownership structure of the group by using the social network analysis which was first developed and utilized in the field of sociology. Key indexes used for the analysis include degree centrality, closeness centrality and betweenness centrality.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analyzed the changes and features of the ownership structure of the SK Group through the social network analysis. The SK Group, which was under the processes of extending and diversifying its business areas and restructuring its business structure, had to secure Chairman Choi Tae-won's shares to prepare for any possible attack from foreign investors like Sovereign and to raise the values of the group. In that process, converting it into holding company system was a strategy important for the enhancement of its power. The SK Group adopted a holding company structure in order to secure the transparency of its ownership structure, but the structure has the problem of being seen as a means to reinforce controlling shareholders' power and their private benefits. In order to control the entire business group, which has become diversified, and maintain its financing structure with a small stake, the head of the group should find a way both to manage the risk of liquidity and to raise capital rationally.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국내 기업집단의 소유구조에 대한 논의는 오래전부터 진행되었으나, IMF외환위기를 계기로 사회적 주목을 받게 되었다. 한국에서는 소유구조의 문제는 특히 재벌 기업의 소유 집중, 정치, 사회적인 갈등을 불러일으켜 재벌 기업 자체가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한국의 소유구조는 일본의 핫토리 타미오 교수가 한국 재벌의 소유구조를 유형화하고, 소유구조는 일정한 순서로 변화해 간다고 한 이래 정구현(1987), 조동성(1991), 이학중(1993)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수용되어져 왔다(공병호, 1994).

소유구조는 주식 소유인의 다양한 지분내역에 관한 것으로 소유구조가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한국기업은 가족집단인 재벌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기업이 거대화 되고 규모가 커질수록 재벌가족 집단의 지분율은 하락하고 개인 소유지분만으로 전체 기업집단을 지배하기가 어려워진다. 이에 따라 대주주는 계열기업 간 출자를 통해 개인 지분율의 저하에 따른 연결 손실을 상쇄하였다. 대주주가 적은 지분율만으로도 기업집단 전

체에 대한 지배가 가능한 것은 계열 기업 간 상호출자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시자료를 활용하여 2002년, 2007년, 2012년 SK그룹의 사업전개와 소유구조를 분석하였으며, SK그룹의 소유구조 변화를 살펴보기 위한 방법으로 사회학 분야에서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는 사회 연결망 분석기법(Social Network Analysis)을 적용하였다.

제2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외환위기 이후 최근 3대 정권(1998년~2012년)중 각 정권 말인 2002년, 2007년, 2012년을 분석 시점으로 SK의 소유구조를 분석하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비교했다. 분석에 사용된 주요 지표는 연결정도중심성(degree centrality), 근접중심성(closeness centrality), 매개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이다.

연결정도중심성은 연결망에서 한 점(node)이 몇 개의 다른 점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로, 직접적인 연결에 대한 중심성을 파악한다. 근접중심성은 직접적인 연결 뿐 아니라 간접적인 연결까지 포함해서 중심성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매개중심성은 해당 점(node)이 순수하게 중계자 역할을 얼마나 잘하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매개

중심성이 크다면 연결망 내의 의사소통의 흐름에 영향을 줄 소지가 많다고 판단할 수 있다.

사회연결망분석에서는 SK그룹의 기업집단 내에서 계열사 간 어떠한 연결 모양을 보여 주는지 확인했다. 분석도구는 사이람(社)에서 개발한 사회연결망 분석을 위한 소프트웨어인 넷마이너(Net-Miner)를 사용했으며, 측정 데이터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정보센터”의 공시 자료와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기업집단공개시스템”의 공시 자료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주제와 관련하여 연구의 목적 및 연구방법을 서술하여 전반적인 흐름을 제시하였다. 제2장 이론적 배경에서는 소유구조의 개념을 확인하고 연결망 분석을 활용한 선행 연구들에 대한 고찰을 하였다. 제3장 연구방법론에서는 연구표본에 대한 설명과 함께 연구의 방법을 기술하였다. 제4장 분석결과에서는 기업집단인 SK그룹의 현황에 대해서 개괄하고, 사회연결망에서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제5장 결론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기업집단

1. 기업집단의 정의

기업집단은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으로 정의되며 기업집단의 범위(계열사 여부)는 지분율과 지배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지분율 기준으로는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따라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 관련자와 합하여 당해회사 발행주식의 30%이상 소유한 최다 출자자인 회사이다.

지배력 기준으로는 동일인이 다른 주요 주주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대표이사 또는 임원의 100분의 50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회사이거나,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 관련자를 통하여 당해 회사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 사업에의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이거나,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와 당해 회사 간에 임원의 겸임이 있는 경우 또는 당해 회사의 임원이었다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 또는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원이었다가 당해 회사의 계열회사로 복직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기업집단의 범위에 속한다.

2. 한국 기업집단의 형성 1)

모든 나라들의 기업집단 역사처럼 한국의 기업도 소속 국적의 법규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적 영향을 받는데 특히 정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국유 재산의 민영화나 지원금, 외화 차입 등은 산업화 초기에 중요한 수단이었다. 따라서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정부의 정책에 협력함으로써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은 기업 성장에 필수적인 과제였다. 성장 동력이 되는 주요 사업 분야를 선점하고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것은 그 어떤 방법보다 빠르게 기업의 가치를 올리게 된다.

동일한 맥락에서 한국의 기업집단의 형성과정을 살펴보면, 시기별로 일제 강점기 해방과 한국전쟁을 거치치고 산업화 초기인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이 추진된 1990년대 그리고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인 현재까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1 해방 이후 1960년대

해방 이후 기업가들이 기업집단을 형성하게 되는데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었다. 첫째, 일제 귀속재산을 정부가 민간에 불하하면서 이

1) 본 연구에서는 김현중(2012)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기업집단의 형성과정을 정리하였다.

기간 유리한 조건으로 불하받은 기업이 기업집단을 형성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다. 일본이 한국기업의 94%를 점유하고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귀속재산의 불하는 기업집단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다. 수혜를 받은 대표적인 기업집단이 지금의 SK, 두산, 한화, 동양, 쌍용, 해태 등이다.

둘째, 외국의 원조와 외화 배정을 통해 기업들은 이를 사업자금으로 크게 성장 할 수 있었다. 당시 원조규모를 보면, 한국 1인당 GNP가 83달러 수준인데 원조는 1인당 600달러로 한국 경제규모에 비해 상당한 수준이었고, 정부 역시 이 원조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 원조는 섬유, 화학, 기계 분야에 집중 투입되어 초기 노동집약산업의 비약적인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다. 당시 수혜를 받은 기업집단의 삼성, 삼호, 삼양, 개풍, 락희, 대한, 동양, 화신, 한국초자, 극동, 현대, 판본, 금성 등이다.

일제 귀속재산의 불하와 외국원조에 힘입어 형성되기 시작한 기업집단은 정부의 경제 개발 과정에서 재편되었다. 1960년 들어 외환보유고 감소에 따라 정부는 ‘단일변동환율제도’를 통해 기업 체질 개선을 시도 했다. 원화를 평가 절하시켜 외화에 의한 의존도를 줄이고 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생산 활동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5개년 경제개발 계획에 따라 공업육성정책을 추진했다. 특히 정부가 선별적으로 중화학공업을 중점적으로 발전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정부 지원 아래 부

채 비율이 상승하고 부실화된 기업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한편, 공업화 과정에서 생긴 차입금 상환을 위해 수출을 강화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외화획득을 위한 정책이었다. 당시의 정책은 수출기업의 거대화과 베트남 전쟁의 수요를 통한 급속한 성장을 이끌어 내는 것이었다. 이때부터 산업의 성장은 자동차, 화학, 제철, 전자, 정유 등으로 확장되었다. 해방이후 상당한 성장을 했음에도 기업들의 기업공개는 극히 소극적이었는데, 이는 경영권 확보에 대한 우려와 상장에 대한 혜택이 미미했기 때문이다.

2.2 경제개발계획(1960년대~1990년대)

한국 경제가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며 고도의 성장을 이어가던 1970년~1990년 까지는 자본시장이 형성되고 산업정책과 구조조정이 시행되던 시기였다. 1956년 대한증권거래소가 개설되었지만 상장 회사의 부족과 일반 투자자의 시장 참여 부재로 비정상적인 거래로 주가폭등, 대주주의 차익실현 등으로 결국,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과 기업공개 촉진법이 제정된다. 이 법으로 1971년 50개이던 상장회사가 6년 사이에 323개로 증가했다.

상장회사의 증가와 시가총액의 큰 증가가 있었음에도 1970년대 세계경제 불황은 기업들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가져왔고 기업들의 사채 의존도가 높아져 부실 위험 또한 급증했다. 이에 정부는 신고 사채

에 대해 분할상환이나 출자 전환으로 구제하는 8·3긴급조치를 시행했고 기업들의 성과는 개선되었으나 이는 정부의 제조업 우선 정책 기조를 보여 주는 현상이었다.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에 따라 기업집단들은 지원을 받으면서 사업규모를 확장하면서 다각화에도 성공할 수 있었다. 이는 기존의 노동집약형 산업에서 중화학공업 위주의 기술집약형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말에는 과잉투자 문제가 발생했고 1980년대 들어 비료, 중기계, 설비제조업 부문의 구조조정이 추진되었다. 이 과정에서 선진국과 달리 국내 기업집단의 소유구조는 사업 다각화에 따른 계열사 출자 때문에 총수일가의 지배력은 더욱 강화되었다.

2.3 외환위기 이후(1990년대~현재)

1980년대 기업집단은 글로벌 3자로 큰 성장을 했지만 1980년대 중반부터 기업의 자율권이 주어지면서 1990년대 초 다시 과잉투자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1991년 기업집단의 주력 기업을 여신관리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주력업체제도’를 도입하고 개선시켜 나갔다. 이 기간 기업집단들은 자생적 경쟁력에 의한 생존이 아니라 정책의 변화에 따라 생존이 결정되는 구조였다. 이는 투자의 방향과 사업 확장이

중시되어 여전히 부실기업과 과잉투자의 문제를 야기했다. 한편 1980년대부터 산업정책기조의 변화와 대외개방 정책으로 이 기간의 산업은 정보통신등 기술 발전 촉진에 주력 되었다. 정부는 제조업의 경쟁력 확보와 산업 고도화를 위해 우루과이라운드 등 해외 시장을 개방하기 시작했고, 이후 WTO가입과 무역자유화 조치 등이 이어졌다.

그러나 수익성보다 확장성 위주로의 투자는 외화 부채 의존도를 높였고 기업부실의 원인이 되었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사업교환 방식의 빅딜을 통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재계합의에 따라 추진된 결과 현대전자와 LG반도체, 삼성과 한중, 현대와 대우 그리고 한진 등 기업 집단 간 비교 우위 산업 중심으로 사업 부분이 재편되었다.

1998년 정부는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경영투명성 제고, 상호채무보증해소, 채무구조개선, 핵심역량 집중, 지배주주와 경영자 책임강화, 제2금융권 경영지배구조 개선, 순환출자 억제 및 부당내부거래 차단, 변칙상속 및 증여방지 등의 정책을 도입하고 기업집단의 구조조정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업종조정정책으로 핵심주력사업으로의 역량을 집중하고 이에 따라 기업집단은 비주력 계열사를 매각 혹은 분사시켰다. 2003년에는 출자총액제한규제 등의 수단으로 대규모기업집단의 출자구조를 변화하도록 했는데, 자본시장의 자율적 기능으로 견제하고자 함이었다.

제2절 소유구조

1. 소유구조의 정의

소유구조란 기업의 지분을 소유한 주체들의 구성형태를 말하는 것으로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기업의 총 지분이 분산된 정도를 말한다. 소유구조는 기업이 소속되어 있는 국적의 법적, 제도적 규제와 소속된 문화의 가치관과 금융 제도의 특성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우리나라 재벌의 소유구조에 대해서는 우선 삼성은 이건희 회장, 현대차는 정몽구 회장, SK는 최태원 회장, LG는 구씨 일가, 롯데는 신격호 회장, GS는 허씨 일가, 한진은 조양호 회장, 한화는 김승연 회장이 소유경영자로 거론된다.(강성부·최종원·변정혜·김상훈, 2012)

소유구조는 기업의 주식을 누가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가를 의미하는데 소유권의 집중과 분산, 의결권의 집중과 분산으로 분석 해볼 수 있다.

소유구조 측면에서 전체 계열기업들의 자본 중 계열기업 출자비중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내부 지분으로 지배주주가 기업집단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 요인은 계열기업 간 출자 형태 및 지배주주의 소유지분구조상 특징을 통해 분석이 가능하다. 실제 지배주주는 비용 효율적

측면에서 계열기업 간 출자를 활용하여 주요 계열기업의 지분만을 보유한 채 전체 계열기업들을 지배하고 있다. 계열기업 간 출자형태는 상호출자(cross-shareholding)와 피라미드 출자(pyramid structure)로 구분된다. 양자 간의 차이는 계열기업 간 수평적 또는 수직적 관계와 지배주주의 합의적 또는 위계적 통제방식에서 찾을 수 있다.

세계적으로 주요 대기업의 지분구조는 상호출자보다는 피라미드 출자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1995년 27개국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각국의 상장자본 기준 상위 20위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분구조를 분석한 결과 ‘상호 출자보다는 피라미드 출자가 일반적인 지배주주의 계열기업 통제방식’이라는 실증결과를 도출하였다(La Porta et al., 1999).

2. 소유구조 이론

이론적 배경으로 기업의 소유구조 이론은 기업발전론모형, 대리인 이론, 확률적 의결권 행사 모형 등이 있다. 기업발전론모형은 기업이 발전함에 따라 소유지배구조의 형태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설명하는 이론이다. 기업이 발전할수록 기업운영에 필요한 운영자금이 신주발행을 통해 모집되면서 소유와 지배의 분리가 이루어진다는 경영자 지배론이 제시되었는데, 이 모형은 기업의 지배구조는 기업의 성장에 큰 영향을 받으므로 대기업의 지배구조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의한 경영자 지배의 형태로 정착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Berle&Means, 1932)

대리인 이론은 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계약관계의 조직구조로 정의하고 있다. 즉 소유구조의 변화에서 발생하는 이해상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구조 이론을 규명하였다(Jensen & Meckling, 1976). 계약관계에서는 대리인 관계가 필연적인데, 대리인 이론은 대리 관계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와 이에 수반되는 대리인 비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주주와 대리인 모두 자신들의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방향으로 행동하기 때문인데, 결국 대리인에 대한 감시 비용까지 발생시키고 이는 도덕적 해이까지 불러일으킨다.

확률적 의결권 행사 모형은 자금의 유동성, 주식의 분산 정도에 확률적 개념을 도입하여 실질적으로 최대주주가 기업을 지배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지분은 어느 정도인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다. 확률적 의결권 행사 모형은 소유지분이 분산된 정도와 소액주주들이 최대주주의 의결안에 찬성할 확률을 고려하여 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 1인이 제안한 의결안이 통과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지분율을 추정하는 모형이다. 이 모형은 기업인수와 관련하여 피인수기업을 지배할 목적으로 주식을 소유할 경우 필요 지분이 어느 정도인가를 설명해주지만, 기업의 소유구조를 형성하는 필요변수들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Cubbin & Leach, 1983)

제3절 소유구조에 대한 선행연구

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출자소유구조에 관해서는 1990년대 이후 경제학 및 경영학계에서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왔으며 주요 연구는 다음과 같다.

1. 공병호(1995)의 연구

한국 재벌은 다른 선진국 기업에 비해 대주주와 그 가족들에게 소유와 경영이 집중된 지배 체제적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부의 소유 집중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들이 제시 되고 있다.

한국 재벌은 다섯 가지 유형의 소유구조를 갖고 있는데 첫째, 오너가 계열 기업들을 직접 지배하는 오너지배형 둘째, 오너가 직접 소유하는 대신 나머지 계열기업들은 모기업이 지배하는 모기업지배형 셋째, 오너가 중핵기업과 그 밖의 계열기업을 동시에 지배하는 복합지배형 넷째, 오너가 모기업을 지배하고 모기업이 다시 중핵기업을 그리고 중핵기업이 계열기업을 지배하는 두단계지배형 마지막으로, 오너가 중핵기업과 비영리재단을 통해 계열기업을 간접지배하는 상호지배형으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재벌의 소유패턴은 일정한 규칙성을 갖고 변화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기존의 재벌의 소유구조가 오너지배형에서 시작하여 모기업지배형을 거쳐 끝으로 상호지배형에 이른다는 주장(햇토리, 1982년)에 대해 소유패턴이 일정하게 변화한다는 어떤 증거도 발견 할 수 없었다. 확인 된 사실은 재벌의 소유유형이 오너지배형이라는 형태를 벗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사실은 지금까지 국내외 학계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받아왔던 햇토리 교수의 가설과는 다른점이 있지만, 햇토리 교수와 공병호의 연구는 모두 소유유형은 오너의 경영지배력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을 이라는데 있다. 특히 오너의 지배력을 확보하는 주요 수단으로 계열기업에 대한 간접지배가 가장 큰 특징이다.

2. 강원·신현한·장진호(2005)의 연구

기업 가치는 지배주주의 지배-소유 괴리도와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데 연구에서 대규모기업집단 소유구조 자료를 이용하여 지배주주의 지배-소유 괴리도와 소속기업의 기업가치 및 경영성과 간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지배-소유 괴리도는 기업규모, 자본구조, 기업연령 등을 통제한 분석에서도 기업가치와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지배-소유 괴리도의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지배-소유 괴리도 측정 후 3년간의 기업가치 평균을 사용한 회귀분석의 결과에서도 괴리도와 기업가치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비상장기업까지 포함한 분석에서는

경상이익, EBITDA 등으로 측정한 경영성과와 지배-소유 괴리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경영성과 역시 지배-소유 괴리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으며, 회귀분석결과도 기업 가치를 분석한 결과와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지배구조 점수와 기업의 가치 및 경영성과에 대한 통계를 지배구조개선센터에서 평가한 결과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였다. 연구결과 기업가치 및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지배-소유 괴리도가 아니라, 경영투명성 및 독립적인 감시 주체 활동임을 밝혔다.



3. 강형철·박경서·장하성(2005)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가족 지분과 기업성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지만 가족 지분을 결정하는 요소로서 통제권 확보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는 않다. 기존 이론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지배주주는 자신의 투자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과 통제권을 확보하는 두 가지의 목적으로 자신과 가족의 지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 양자는 상반되는 의사결정을 요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기업집단에 있어 특정기업의 성과는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다른 계열사에 대한 지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이 기업에 대한 지분을 확보함으로써 지배주주는 기업집단 전체에 대한 통제권 확보가 용이해진다.

표본기간은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일시적으로 폐지되었던 1998년부터 2001년까지로 설정하고, 표본기업은 연구의 목적적합성을 고려하여 지배주주가 가족인 기업과 계열사가 1개 이상 존재하는 기업에 한정하고, 개인이 지배주주로 있는 국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지배주주와 그 가족의 소유 지분율이 어떤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가를 분석해보면, 가족 지분을 결정하는 가장 주요한 요인은 기업가치보다는 계열사에 대한 통제권인 것으로 나타난다.

지배주주는 자신이 지배하는 그룹의 계열사들에 대한 통제권을 극대화하기 위해 그룹 내에서 다른 계열사에 대한 지분을 많이 보유한

기업의 지분을 소유하기를 선호하는 일관된 결과가 발견된다. 반면 다른 계열사에 대한 투자지분이 적은 기업은 다른 계열사에게 소유하도록 한다는 결과도 부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이상의 결과는 연립방정식 모형을 이용하거나 지분율의 변화 분을 이용하여 추정하더라도 왜곡된 결과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계열사 간 거래를 통해 지배주주가 사적이익을 추구하는지, 아니면 계열회사 간 상호지원 도구로 이용하는지에 대해 비상장회사를 포함한 재벌 계열사를 분석한 결과 채무보증의 경우 상호지원이 일반적인 현상이며 지원 성격이 명백한 부당내부거래의 경우는 계열사 지원과 일감몰아주기 목적이 공존했다. 계열사 간 내부거래가 그룹의 피라미드 구조의 형성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고, 지배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더라도 재무적으로 어려운 기업을 지원할 수 있다.

4. 김진방(2005)의 연구

재벌의 소유구조에 관한 과학적 분석과 평가를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자세한 현황파악이 필수적이며, 그를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김진방의 연구는 30대 재벌의 자세한 소유구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700여 개 계열사의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검토하였고, 6년간의 소유구조 변동을 알아보기 위해 7개년의 사업

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비교했다. 30대 재벌의 소유구조 현황을 파악하여 설명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경제에서 ‘재벌’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며, 재벌은 한국경제의 역사적, 구조적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상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점에서 재벌은 양적으로든 질적으로든 한국경제의 특징을, 그 장점이 아니라 단점까지도 고스란히 보여줄 수 있는 핵심변수라 할 수 있다. 1997년 말 경제위기 이후 ‘재벌개혁’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면서 재벌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나타났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문제해결은 언제나 엄밀하면서도 체계적인 분석과 평가에서 출발하는데 재벌처럼 한국경제를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대변하는 문제일 경우, 더욱 더 그러하다.

기존의 재벌 관련 연구는 엄밀한 논리나 사실에 의한 철저한 검증작업도 없이 추상과 이념의 수준에 머물러 있거나, 부족한 통계자료에 따른 선부른 평가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오늘날에도 크게 개선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재벌 관련 연구가 엄밀한 논리보다 신념이나 이념의 강조에 그치거나, 객관성과 과학성을 강조하는 연구조차 실증보다 예단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재벌 관련 연구가 수 없이 많지만 연구자들 사이에서 여전히 의견의 통합보다 대립이 많은 이유는 결코 이러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이런 대립은 한국의 사회와 경제에서 재벌이 차지하는 비중만큼이나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대립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추상이 아닌 실증을 판단의 기준으로, 이념이 아닌 실용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 논의가 축적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연구는 재벌체제에 대해 체계적인 DB를 구축하고, 여기에 기대어 재벌체제를 분석하고 평가했다. 재벌에 관한 연구는 기본적으로 포괄적, 총체적일 수밖에 없는데 재벌의 특징이 계열사 내부의 사업구조, 재무구조, 소유구조에 국한되지 않고, 노사관계, 인적 네트워크, 경영지배구조, 소액주주운동, 재벌관련 정책과 법규,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공동 연구를 통해 먼저 각종 정부기관의 보도 자료나 발표자료, 재벌 관련 언론기사나 한국신용평가(주)의 KIS-LINE의 기업 재무자료, 재벌의 계열사 별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재벌관련 정책 및 법제, 노사관계 관련 자료, 총수일가와 경영진, 소액주주운동 등을 통해, 재벌과 관련된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고 정리해서 체계적인 DB를 구축했다. 그 후 구축된 DB를 이용해서 재벌에 대한 기초적 분석과 평가를 시도함으로써 과학적인 재벌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다.

5. 김현종(2006)의 연구

김현종의 연구는 소유지배과리지표가 기업성과, 기업가치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어 민간 기업집단 뿐만 아니라 공기업 등 공공의 기업집단도 분석대상으로 삼고, 공기업 등 정부가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경우에도 일반 민간 기업집단과 마찬가지로 소유권보다 많은 지배권이 남용되고 있음을 주장했다.

연구에서는 정부지배기업집단을 공기업집단, 민영화기업집단 및 법정관리기업집단으로 분류하여 각 표본별로 정부의 소유지배과리지표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다.

민영화기업집단의 경우, 정부의 소유지배과리지표의 증대가 계열사의 성과지표를 개선시킬 수 있다는 회귀분석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민영화기업집단 계열사에 대한 소유지배과리지표를 감소시킬수록 기업성과가 향상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민영화기업집단에 대하여 정부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소유지분보다 더 많은 지배력을 남용하여 기업성과를 악화시켰을 여지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법정관리기업집단의 경우, 정부의 소유지배과리지표가 증가할수록 계열사의 성과지표가 향상되는 회귀분석 결과를 나타내어 민영화기업집단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제시하였다.

공기업집단의 경우, 성과지표가 다른 기업집단보다 낮다는 사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공기업집단 계열사의 토빈의 Q는 통계적으로 다른 기업집단의 계열사와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공기업집단의 성과지표가 낮게 나타난 것은 공기업의 목적이 이윤극대화가 아닌 공공목적에 있기 때문일 수 있으며, 공기업집단 계열사의 디스카운트는 발견되지 않았다. 공기업집단의 경우, 정부의 소유지배과리지표는 기업성과지표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의 소유권이 감소하면 공기업집단 계열사의 영업이익률이 상승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공기업집단 계열사에 대한 소유권을 감소시키면 다른 성과지표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대신, 영업이익률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연구의 의의는 민간 기업집단이 아닌 정부가 지배하는 기업집단에 대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정부의 소유권-의결권 격차는 공기업집단과 법정관리기업집단의 투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영화기업집단 계열사의 투자도 정부의 소유지배과리지표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부의 소유권이 감소하면 민영화기업의 투자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민영화기업집단의 계열사들은 다른 표본에 비하여 투자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민영화기업의 높은 투자율은 정부의 소유권이 낮은데서 비롯되었다.

6. 강영철·빈기범·조성훈·윤정선(2007)

우리나라에서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기업지배구조의 중요성이 부각된 가운데, 재벌이라 불리는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논쟁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유구조를 ‘지배소수주주 체제’로 요약하면, 지배소수주주란 절대적 다수의 지분을 소유하지 않으면서도 지배권을 행사하는 주주를 가리키며, 이러한 지배소수주주 체제 하에서는 지배와 소유의 괴리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지배-소유 괴리는 지배주주와 여타 주주 간의 대리인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괴리의 정도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책적 노력이 정당성과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우선 지배-소유 괴리를 최대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지배-소유 괴리가 실제로 기업의 가치 및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기업집단에 대해 지배-소유 괴리를 측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광범위하고도 엄밀한 이론적, 실증적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기업집단 정책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배-소유 괴리 측정 방법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 밝히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측정 방법을 소개한다. 그리고 측정 방법에 따라 동일한 기업집단을 대

상으로 계산된 지배-소유 괴리는 상당한 차이를 나타냄을 보인다. 또한 지배-소유의 괴리 정도가 기업의 가치 및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지배-소유 괴리 방법별로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제4절 소유구조와 사회연결망분석에 대한 연구

1. 장덕진(1999)의 연구

장덕진(1999)은 1989년 기준 국내 상위 49개 기업집단의 출자행렬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기업집단이 계층적 위계(nested hierarchy; 계열사들이 소수의 역할집합에 각각 속해 있고, 이들 역할집합 간에 상호 위계적인 출자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지칭)라는 구조적 유사성(isomorphism)을 갖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 기업집단은 분석대상 기간 중 총수일가의 그룹지배력과 계열사 간 출자관계의 복잡성이 모두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에 따라 외부의 경영권 공격에 취약해지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재벌들은 계열사 간의 연결망 구조를 전략적으로 배열함으로써 제도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예외 없이 “중복위계”라는 형태의 지분연결망을 구성함으로써 공정법상의 규제를 준수하면서 동시에 회장가족의 통제력을 극대화 하는 방식을 취한다고 제시하였다. 즉, 회장 가족이 적은 지분율에도 불구하고 그룹 전체의 강력한 통제를 가능케 하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에 대한 분석과 함께 동형구조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며 다양한 내부 변이의 유형을 찾아내고, 블록 내 외부의 중복 위계의

작동원리를 밝혔다.

49대 재벌의 지분연결망에 대한 분석결과 두 가지 결과를 얻었는데 첫째, 신제도주의 조직이론이 예측하는 동형구조에 대한 연결망적인 증거를 찾았다. 둘째, 이러한 동형구조 내부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구성된 위계들이 존재하며 이를 6가지 하위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다. 또한 이 유형들은 그룹의 추가적인 성장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정도의 구조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결국 이 연구의 결론은 회장 가족이 적은 지분율에도 불구하고 그룹 전체의 강력한 통제를 가능케 하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동형구조에 대해 신제도주의에 근거한 증거를 제시하며 다양한 내부 변이의 유형을 찾아내고, 블록 내 외부의 중복 위계의 작동원리를 밝힌 데 있다. 다만 시계열에 걸친 자료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1989년 자료에서 확인된 동형구조가 그 이전부터 존재하던 것인지 공정거래법 상의 제약으로 인해 새로이 형성된 것인지 확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2. 강민정(2001)의 연구

과거 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했던 재벌은 특히, 그동안 폐해로 지적되어 왔던 ‘소유와 경영 집중’의 해체라는 변화를 모색해 왔고, 재벌의 많은 특징적인 부분들이 소유 집중에서 비롯된다는 관점에

서, IMF 구제금융 이전(1997년)과 이후(1999년)의 소유구조를 비교함으로써 소유 집중의 정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살펴보았다. 즉, 한국 5대 재벌 간 그리고 그들 계열사 간 대주주의 소유 관계의 구조적 등위성에 기초하여, 연결망 분석 프로그램인 UCINET V, Krackplot3.0을 이용하여 소유구조의 연결망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첫째, 5대 재벌 모두 경제위기 이후 전체적인 중심성은 약화되었고 소유구조에서 완전히 배제된 기업들도 증가했으나 개별 기업들을 살펴보면, 그룹 내의 주력업종이라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소유구조가 다시 위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IMF의 요구와 그에 따른 정부의 정책, 또는 변화한 시장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한 기업의 연결망 구조 재편 현상이다. 둘째, 회장 또는 회장일가의 중심성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에서부터 일단 직접 소유의 정도는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줄어들었다 할지라도 그룹 내에서는 중심성이 여전히 높으며, 중심성이 높은 주력업종 계열사들을 소유함으로써 간접소유의 방식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연결망 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97년도까지는 재벌의 회장과 그 일가에 의한 계열사 지분소유가 높은 비율이었고, 그 숫자도 많았으나, 99년도에는 그 비중이 줄어들었다. 2) 97년도에는 재벌의 계열사들이 내부지분소유를 통해 복잡하여 연결되어 있었으나 99년도에는 전체적인 소유구조가 느슨해졌

다. 3) 경제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각 재벌의 비관련 다각화 계열사들은 줄어들거나 사라지고 주력업종의 계열사들을 중심으로 소유구조가 재편되고 있다. 결국, 주식소유를 통한 5대 재벌들의 소유구조의 변화를 경제사회학적 관점에서 검토해 본 결과, 경제위기 이후 변화된 제도적 환경과 조직 환경 속에서 재벌의 살아남기 위한 전략으로서의 연결망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3. 최충규(2008)의 연구

최충규의 연구는 기업집단의 소유구조 형성에 관한 이론모형을 구축하여 어떠한 소유구조가 균형에서 도출되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피라미드식 소유구조를 포함한 다양한 소유구조의 형성 원리와 유인체계를 분석하고 있다. 균형에서 도출되는 각각의 소유구조가 창업주와 외부주주 간의 보수 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과 모형의 변형을 통해 상호출자금지, 주주중심주의 채택, 지배권 확보장치의 도입 등 기업집단 관련시책이 기업집단의 소유구조와 유인체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분석에 따르면 대부분의 기업집단에서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중앙 행위자'와 출자를 가장 많이 받은 '위세 행위자'는 분석대상기간 동안 소속 기업집단의 출자관계에서 지속적으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분석대상기간 동안 각 기업집단의 계열사 수, 출자의 건수·금액·

지분율 등이 거의 끊임없이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 기업집단의 출자관계에서 총수일가 및 핵심 계열사들의 역할은 거의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다. 또한 기업집단의 자산규모가 커질수록 중앙 행위자 및 위세 행위자의 영향력이 감소하여 그룹 전체의 중심화, 위세 중심화 및 응집성도 감소하다고 제시하였다. 직접출자뿐만 아니라 간접출자도 함께 고려할 경우 각 기업집단의 출자사슬에서 최상위에 위치한 총수일가의 영향력은 더욱 크게 나타나고 제시하였다.



제3장 연구방법론

제1절 연구표본

연구표본인 SK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하는 대규모기업집단에 지정되어있는데, 기업집단은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이라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의하고 있다. 그 기준에는 기본율과 지배력이 있는데 기본율은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관련자와 합하여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함을 뜻하고, 지배력은 아래 요건 중 하나에 속하면 된다.

동일인이 임원의 50%이상 선임하거나, 동일인이 당해 회사의 조직변경, 신규사업투자 등 주요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동일인 지배회사와 당해회사 간 임원겸임이 있거나, 통상적 범위를 초과하여 동일인 및 동일관련자와 자금·자산·상품·용역 및 계열회사로 인정 될 수 있는 영업상 표시행위 등 사회 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 되는 회사 여기에 속하는 기업집단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매년 지정 및 발표하고 있다. 연구표본이 되는 기업집단 SK그룹의 연도별 기업집단 공개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3-1> 에스케이의 기업공개 현황

연 도	전 체	공개회사	공개비율(%)
2002년	62	9	14.52
2007년	57	12	21.05
2012년	94	18	19.54

제2절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 소유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2002년, 2007년, 2012년 대
상기업의 소유 지분구조 현황을 연도별로 측정하였으며 측정값을 활용
하여 기업집단의 소유구조를 분석하고 기업 전개 과정에서 정부의 재
별정책에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분석했다. 기업집단의 분석을 위해 이
용한 방법은 연결망 분석이다.

일반적으로 연결망 분석은 사회학에서 주로 쓰이는데 사회관계의
형태로서의 사회구조를 주로 분석한다. 이 분석의 특징은 데이터의 개
별 속성이 아니라 데이터 간 관계의 방향과 크기에 의해 사회구조를
파악한다. 사회연결망분석은 분석 대상을 사회 관계망의 형태와 유형
으로 사회 구조를 분석하는 것으로, 사회학에서 주로 쓰이는 분석기법
이다.(김용학, 2010) 지금은 심리학부터 경제학, 경영학까지 다양한 분

야에서 사회현상을 이해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사회 연결망분석은 1932년 뉴욕 허드슨여자학교의 가출에 대한 원인 조사에서 사회연결망에서의 위치가 설득력을 가졌고, 1967년 밀그램(Stanley Milgram)이 “6도 분리 가설”을 주장하면서 학문적으로 널리 알려졌다. 사회학에서 네트워크 간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는 상호 연결된 관계가 확장 되면서 그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는데 도구로 유용하기 때문이다. 점차 거대화 되어가는 네트워크는 분산되어 흩어지는 것을 집중시키기도 하고, 집중된 네트워크는 다시 분산되기도 하므로 이를 적절히 해석하는 기법이 필요하다.

연결망분석이 중요한 이유로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정보와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여러 차원 사이의 인과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고 둘째, 정보 사회의 도래로 전자 정보의 방대한 축적으로 비교적 쉽게 정보를 가공하여 각종 네트워크를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용학, 2011)

사회연결망분석은 네트워크에서 개체 간에 이루어지는 관계의 유형과 결과에 대한 분석 기법으로 네트워크의 특징과 구성개체가 나타내는 다양한 관계적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밀도, 등위성, 중심화, 중심성 등이 있다.

밀도는 총관계의 수 중에서 실제로 맺어진 관계의 비율, 즉

$1/\{n(n-1)/2\}$ 로 정의되며 관찰된 밀도는 집단의 크기와 반비례한다. 포괄성은 한 그래프에 포함된 결점의 총수에서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결점들의 수를 뺀 수의 비율로 정의된다. 등위성은 위치적 접근에 의해 구조적 등위성, 역할 등위성, 그리고 형태적 등위성으로 나누어진다. 구조적 등위성은 연결망 내의 행위자들이 서로 어느 정도 같은 유형의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행위자 A와 행위자 B가 서로 직접적으로 연결은 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행위자들과 연결되어 있다면 이 둘은 구조적으로 같은 위치를 차지하는 개념이다. 형태 등위성은 행렬 (ij) 가 다른 점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형태가 동일하면 두 집단은 구조적 등위성을 갖는데 이를 완화된 개념이 형태 등위성이다. 역할 등위성은 구조적 위치를 추상화시킬 때 사용되는데 구조적 등위성 보다 더 적은 숫자의 등위 집단을 찾아 낼 경우에 쓰인다. 중심화는 전체 연결망의 형태가 어느 정도 중앙에 집중되었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한 연결망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중앙 집중적인 구조를 가졌는지 혹은 결속되었는가를 측정하는 것이다.

1. 중심성²⁾

중심성은 권력과 영향력이라는 개념과 연결되어 가장 많이 쓰이는 지표 가운데 하나로, 특정 기업집단의 출자관계에서 어떤 기업이 얼마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지를 나타낸다. 해당 기업집단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이 얼마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지 알 수 있다. 또한 네트워크상의 어떤 결점(node)이 얼마만큼 중심 가까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정도라 볼 수 있다. 특정한 결점이 많은 다른 결점들과 연결을 갖게 될 경우 그 결점은 점차 네트워크의 가운데 쪽으로 위치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연결망 관계에서 방향성이 없다면 우리 사회는 단순히 특정노드가 맺고 있는 관계의 숫자로만 중심성을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관계의 방향성 측면에서 2종류의 특성이 존재한다. 관계의 거점이 되는 결점과 관계 거점이 되고픈 결점인데, 기업집단에서 지주회사는 항상 주변 관계사들에 영향을 미치는 결점으로, 관계를 중시하고 계열사들은 협력을 기대하는 결점이다. 많은 결점들이 연결을 요청할 경우를 내향 중심성(in-centrality)이 높다고 한다.

내향 중심성과는 반대로, 스스로 많은 결점들(지주회사)과 연결되고 자하는 경우 외향 중심성(out-centrality)이 높다고 한다. 사회 연결망에서 대다수의 결점(계열사)들은 내향 중심성을 높여서 중심적 위치를

2) 김용학(2011년)의 저서에서 분석되는 중심성의 개념

언고자 한다. 중심성은 접근법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된다. 분석에 사용된 주요 지표에는 앞서 언급된 연결정도중심성(degree centrality), 근접중심성(closeness centrality), 매개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 세 가지이다.

1.1 연결정도중심성

연결정도중심성은 연결망에서 한 결점이 몇 개의 다른 점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방향이 있는 네트워크에서 그 결점으로 오는 방향의 연결들에 대해서는 내향 중심성(indegree centrality)이라 하고, 그 점에서 밖으로 나가는 방향의 연결들에 대해서는 외향 중심성(outdegree centrality)라고 한다. 대부분의 네트워크 분석 프로그램에서 최대 연결선 수에 대한 퍼센트로 표현되는 지역 중심성은 크기가 다른 연결망들 간에서는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진다. 연결망의 크기가 클수록 그 연결망에 속한 점들의 중심성이 낮아지는 경향이 통계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같은 크기를 가진 연결망들 사이에서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다. 연결정도 중심성은 전체 연결 수에서 각 행위자의 내향 연결 정도와 외향 연결 정도의 비율로 측정된다.(김용학, 2011년)

$$C_i = \frac{\sum_{j=1}^N (z_{ij} + z_{ji})}{\sum_{i=1}^N \sum_{j=1}^N z_{ij}}$$

$i \neq j, 0 \leq C_i \leq 1$ (i 만의 관계/모든 관계)

1.2 근접중심성

한 결점의 전체 중심성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지표는 근접중심성으로 다른 결점들과의 인접성 혹은 거리로 측정할 수 있다. 두 결점들 간의 거리는 두 결점들을 연결하는 최단 거리, 즉 경로 거리를 말한다. 경로 거리의 합이 가장 작은 결점이 전체 중심성이 가장 높은, 네트워크 전체의 중심을 차지하는 결점이다. 지역 중심성과 같이 전체 중심성은 방향성이 있는 네트워크에서 방향에 따라 내향 근접성(in closeness)과 외향 근접성(out closeness)으로 구분하여 측정된다.

근접중심성은 단순히 직접적인 연결로서는 각 결점의 연결망상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직접적인 연결 뿐 아니라 간접적인 연결까지 포함해서 중심성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하나의 결점과 연결된 모든 결점의 거리를 계산함으로써 해당 연결망에서 전체 중심성 판단이 가능해 진다.

1.3 매개중심성

매개중심성은 근접중심성과 유사하지만, 차이점은 해당 결점이 순 수하게 중계자 역할을 얼마나 잘하는지를 측정하는 지표로, 한 결점의 중앙성을 측정하는 제3의 방법이다.(Freeman, 1979) 이 개념은 한 결점이 연결망 내의 다른 점들 사이에 위치하는 정도이다. 한 결점이 다른 결점들 사이의 최단거리를 연결하는 최단 경로 위에 위치할수록 그 결점의 매개중심성이 높아진다. 매개중심성이 크다면 연결망 내의 의사소통의 흐름에 영향을 줄 소지가 많다고 판단할 수 있다.

$$C_B(p_m) = \frac{\sum_{i=1}^N \sum_{j=1}^N \frac{g_{imj}}{g_i}}{(N^2 - 3N + 2)/2}, \quad \text{단, } i < j \text{ and } i \neq j$$

앞서 살펴본 개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2> 중심성 도구의 개념 정리

핵심개념	정 의	연구에서의 의미
연결정도중심성 (degree centrality)	직접 연결된 결점 수를 의미	기업집단 내 직접적인 소유관계 파악
근접중심성 (closeness centrality)	다중적으로 연결된 결점의 중심 확인	기업집단 전체에서 핵심 계열사 파악
매개중심성 (betweenness centrality)	결점과 결점을 연결하는 매개 역할	기업집단 내 지분의 흐름 파악

이상 세 가지 지표를 활용해 기업집단의 소유구조를 분석하고 사회 연결망분석에서는 소속회사 간 어떠한 모양을 보여 주는지 확인할 수 있다. 분석 도구로는 Freeman이 개발한 UCINET6, UCINET6의 파생 프로그램인 Pajek, 2차원적 분석 도구인 SPSS 등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NetMiner를 사용하는데 다른 프로그램들에 비해 편의성이 크다.(김용학, 2011)



제4장 분석결과

제1절 SK 기업집단 현황

1. SK의 기업집단 형성 과정

SK그룹은 에너지, 화학, 통신, 경제, 건설, 기타 등의 분야를 다루는 대한민국의 재벌 기업 집단으로 1939년 설립된 선경직물이 시초이다. 1976년 선경그룹으로 상호를 변경했으며 1998년에 선경그룹에서 SK그룹으로 그룹명을 변경했다. 2007년부터 복잡한 지배구조인 순환출자제도를 정리하고 지주회사로 전환했다.

1939년, 조선의 선만주단과 일본의 경도직물이 합작해 선경직물을 설립한 것이 선경그룹의 시작이다. 1945년 해방 이후 선경직물은 일본인 재산으로 미 군정의 관리를 받다가 정부 수립 이후 정부에 귀속되었다. 정부에 귀속되었을 당시 생산부장인 최종건은 1953년 종전 후 한국 전쟁 중에 완파된 선경직물 공장 부지를 수복하고 귀속재산을 매수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선경직물을 설립하고, 1956년 선경직물을 주식회사로 개편하였다.

이후 선경그룹은 섬유 산업에 주력하여 1962년 인견직물을 해외로

수출했고, 선경잔디공업(1965년), 선경화섬(1966년), 선산섬유(1970년) 등을 설립하였다. 한편 섬유 해외 수출을 위해 무역업을 목적으로 하는 선경산업을 1962년에 설립하였고, 그 해에 대한민국 최초로 홍콩에 섬유를 수출하였다.

선경유화를 설립(1973년)하여 석유화학 및 정유 분야에 진출하였으나 그 해 최종건 회장이 사망하고 최종현 회장이 승계하였으며, 선경이 스폰서가 된 MBC 장학퀴즈가 첫 방송을 시작하였다. 선경그룹은 1975년 제2창업 선언으로 수직계열화하고 석유 산업뿐만 아니라 건설(선경종합건설), 목재(선경목재), 금속(선경금속), 기계(선경기계), 화학(선경화학), 관광업(위커힐호텔), 선경그룹 연수원 등의 분야에 진출하였다. 1976년 당시의 선경직물과 선일섬유 등을 흡수·합병하여 상호를 (주)선경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종합무역상사 1호로 지정 되었다. 1977년 선경그룹이 기업공개 되었고, 1978년 선경화학이 국내최초로 폴리에스터 필름 개발에 성공하였다.

1980년에는 비디오테이프 개발에 성공 하였으며, 그 해 11월에는 대한석유공사를 인수하였다. 1982년 유공해운을 설립하였고, 이어서 유공코끼리 축구단을 창단하였다. 1984년 유공가스를 설립하였고, 1987년 유공아코화학을 미국 아코와 합작으로 설립하였다. 1989년 서울 우이동의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SUPLEX를 추구 정립을 하였고, 1991년 19년 만에 선경그룹 수직계열화를 완성하였다. 1992년 태평양화학그룹의 태

평양증권을 인수하여 선경증권을 설립해 금융업에까지 진출했다.

1994년 민영화된 한국이동통신의 대주주가 되면서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한 이래 1996년 011 상용화를 성공하였으며, 1997년 한국이동통신을 SK텔레콤으로 사명을 변경하였다. 1998년 유공을 SK주식회사로 사명을 변경함과 동시에 그룹명을 선경그룹에서 SK 그룹으로 변경하였다. 그 해, 창업주인 최종현 회장이 별세하고 최태원 회장이 승계하였다. 2000년 SK상사에서 SK글로벌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같은 해 SK 와이번스를 창단했다. 2002년에는 신세기통신을 흡수·합병 하였으며, 2003년 SK텔레콤의 손길승 회장이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2005년 10월에 SK 그룹의 총 수출액이 100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그 해 11월 ‘행복날개’ 회사로고가 발표되었다. 2007년 7월 SK의 지주회사 전환으로 SK주식회사가 사업회사인 SK에너지와 경영회사(지주회사)인 SK주식회사로 분리되었다. 최근의 변화로 2012년 2월 SK의 계열회사인 SK텔레콤이 세계2위 반도체 업체인 하이닉스반도체를 인수했고, 3월에 SK하이닉스로 사명을 변경하였다.

2. SK 기업 현황

본 연구는 전술한 바와 같이 사회 연결망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기업집단 SK의 계열사 관계를 연구하는데 특히 출자액, 출자지분율이

고려되었다. 연구에서는 그 중 SK그룹을 연구 대상으로 지정했다. 지정 사유는 데이터 측정 기간 중 상위 4개 집단에 속해 있고 2012년 현재 자산총액 100조원 이상이며 사업 다각화가 잘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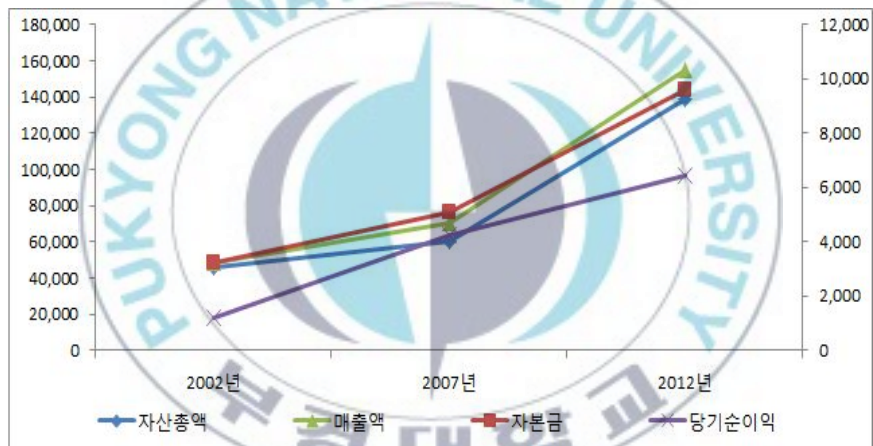
분석대상인 SK그룹의 데이터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정보센터”의 공시 자료와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기업집단공개시스템”의 공시 자료를 이용하였다. 표본대상이 되는 소속 계열회사와 자산 현황은 <표 4-1>과 같다. 측정 대상이 되는 기업집단의 소속 계열 회사의 현황을 연도별로 현황은 <부표> 로 첨부 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에 의거하여 SK그룹의 계열회사로 지정한 기업은 2012년 4월 기준으로 모두 94개이며, 이 가운데 주식이 상장된 회사는 18개이다. 2007년 에는 57개이며, 상장된 회사는 12개였다. 2002년 에는 62개이며, 상장된 회사는 9개였다. 대상 연도별 재무 현황은 다음 <표 4-1>와 같으며, 2002년 자산총액은 45,603억 원에서 2012년 139,011억 원으로 약 3배 증가하였으며, 자본금의 경우 2002년 3,209억 원에서 2012년 9,607억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매출액 또한 2002년 48,561억 원에서 2012년 154,733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당기 순이익은 2002년 1,207억 원에서 2012년 6,416억 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1> 기간 별 SK의 재무현황

(단위: 십억 원)

연 도	자산총액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
2002년	45,603	3,209	48,561	1,207
2007년	60,097	5,101	70,210	4,222
2012년	139,011	9,607	154,733	6,416



<그림 4-1> 기간 별 SK의 재무현황

비교가 되는 국내 일반회사 중 상위 4개 기업집단의 출자총액은 다음 <표 4-2>과 같다. 4대 기업집단 모두 순자산이 크게 늘었으며 출자총액 또한 계열사 위주로 늘어났다. SK그룹의 출자총액 현황을 보면, 계열사의 경우 2002년 5,743,512원 2007년 6,968,669원으로 증가하였으며, 비 계열사의 경우 2002년 1,185,249원, 2007년 1,196,320원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특히 삼성과 현대자동차의 경우 계열사 간 출자 총액은 약 2배 정도 증가하였으며, LG그룹은 출자총액의 변화가 크지 않았으며, 이러한 이유는 LG그룹과 GS그룹이 기업 분할로 분리되었기 때문이다.

<표 4-2> 4대 기업집단 출자총액 현황

4대 기업집단	년도	순자산	출자총액	
			계열사	비 계열사
SK	2002	17,511,404	5,743,512	1,185,249
	2007	25,169,134	6,968,669	1,196,320
삼성	2002	34,134,759	4,984,566	1,233,812
	2007	87,116,687	11,020,677	1,386,563
LG	2002	18,609,228	6,683,582	1,079,544
	2007	25,648,849	7,021,395	671,239
현대자동차	2002	14,732,057	2,967,351	599,072
	2007	31,981,784	4,918,163	830,812

SK의 기업 공개 현황을 살펴보면 <표4-3>와 같다. 2002년도에 62개 이던 계열사가 2007년 57개가 되었는데, 이는 2003년 소버린 사태 이후 구조조정의 영향이며, 2012년 다시 94개사로 크게 늘어난 것은 이후 소유구조 재편과 투명성 확대 그리고 주력사업을 위주로 다각화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표 4-3> SK의 기업공개현황

(단위: 개, 십억 원, %)

연도	회사수 기준			자본금 총액		
	전체	공개회사	공개비율 (%)	전체	공개회사	공개비율 (%)
2002	62	9	14.52	4,348,019	2,401,035	55.22
2007	57	12	21.05	5,262,553	1,957,446	37.2
2012	94	18	19.15	9,769,301	6,542,246	66.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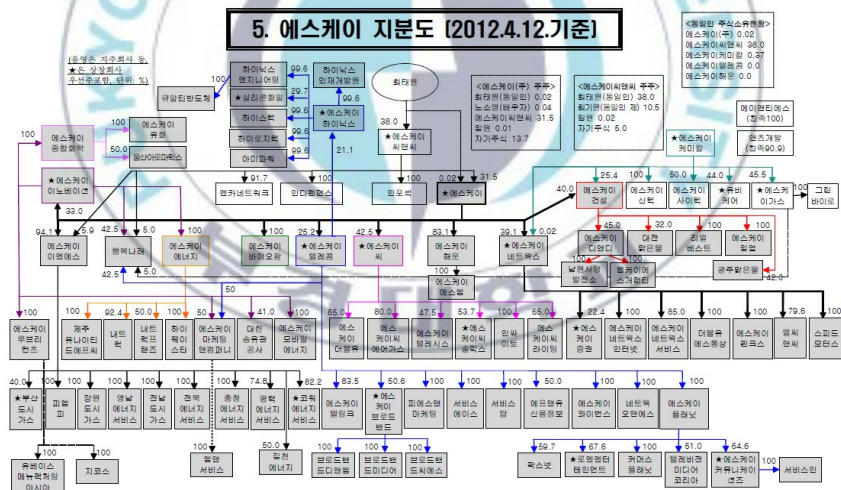
3. SK 소유 현황

SK의 내부지분 현황은 다음 <표 4-4>와 같다. 발행주수는 2002년에 비해 2007년, 2012년까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분율은 내부지분율의 특수관계인, 소속회사 그리고 내부지분을 전체 모두 소폭의 변동만 확인 할 수 있었는데, 동일인인 최태원 회장의 지분율만

이 2002년도에 비해 2012년 현재 67%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SK의 내부지분율에 대한 지분도는 <그림 4-2>와 같다

<표 4-4> SK의 내부지분율

연도	주식수		내부지분율(%)			
	총발행	동일인 (최태원)	동일인 (최태원)	특수 관계인	소속회사	전체
2002	1,099,684,627	27,556,429	2.51	0.60	48.80	53.86
2007	1,664,803,210	18,318,740	1.10	1.19	52.05	57.07
2012	2,869,024,441	23,097,758	0.81	1.24	46.27	49.53



<그림 4-2> SK의 지분도

4. 사업구조

SK그룹의 매출액 기준 영위 업종과 연도별 매출을 살펴보면 <표 4-5>과 <부표>와 같다. 2002년 50조, 2007년 70조, 2012년 150조의 그룹 전체 매출액을 확인 할 수 있는데, SK그룹은 30여개의 업종 중 석유, 화학, 통신, 그리고 상품중개 등 4개 업종이 전체 매출의 80%이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2년 주력 업종은 SK글로벌(SK네트웍스)을 중심으로 상품중개업과 석유, 통신업 3개 업종에서 매출 40조로 80% 비중을 차지했으며, 2007년은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통신업, 상품중개 등 3개 업종에서 매출 55조로 78%매출 비중을 차지했다. 2012년에는 기존 상품중개업과 함께 석유정제품 제조, 화학, 통신업의 큰 성장으로 3개 업종 매출이 120조를 넘으면서 81%비중을 차지했다.

사업구조의 특징은 첫째, 전통적으로 매출 비중이 높은 상품중개, 통신업종 등의 안정적 성장을 바탕으로 주력 업종의 전환이 아닌 주력 업종의 확장을 이루어 냈다. 둘째, 매출 비중이 높은 현재의 주력 업종인 통신, 석유, 화학 위주로 사업구조를 재편하면서 이들 업종이 크게 성장 했다. 셋째, 사업 영역을 확장하면서 기존 영위 업종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인수와 합병을 꾸준히 하고 있다. 2012년 인수한 세계 2위의 반도체 회사 하이닉스는 기업집단 내에서 매출액 기준 5위를 차지함과 함께 계열사들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즉 SK그룹

은 2000년대 들어서도 꾸준한 인수, 합병과 함께 사명 변경, 분사 등의 정책으로 주력 업종을 강화함과 동시에 다각화 된 사업 분야의 전반적인 매출 증대를 추구하고 있다.

<표 4-5> SK의 영위 업종별 매출과 소속회사 현황

(단위:백만원)

업 종	2002년		2007년		2012년	
	매출액	계열사	매출액	계열사	매출액	계열사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106,012	1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82	1	53	1
교육 서비스업					10,424	1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234,869	1	268,807	1	518,541	1
금융업	14,266	2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			1,814	1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113	1	181,334	2	103,334	2
기타 제품 제조업					28,127	1
농업	0	1				
도매 및 상품중개업	19,912,889	6	30,351,454	5	32,970,345	6
방송업			171,231	5	4,919	1
보험 및 연금업	1,493,566	1				
부동산업					418,615	4
사업시설 관리 및 조정 서비스업					246,086	2

<표 4-5: 계속> SK의 영위 업종별 매출과 소속회사 현황

(단위:백만원)

업 종	2002년		2007년		2012년	
	매출액	계열사	매출액	계열사	매출액	계열사
사업지원 서비스업	15,780	1	42,900	1	469,347	6
소매업(자동차 제외)	8,995	1			26,198	1
수리업					152,839	1
수상 운송업	1,563,766	2	1,815,482	2	2,260,366	2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21,314	1	20,245	1	56,721	3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171,842	2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83,678	1	145,955	1	218,179	1
음식점 및 주점업	174,030	2	283,516	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503,405	5	2,704,249	8	35,022	1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15,897,080	2	574,322	2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591,685	12	2,727,723	10	4,534,327	12
전기장비 제조업			23,312	1	18,959	1
전문서비스업					1,425,453	2
전문직별 공사업	16,677	2	71,418	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442,016	3	396,649	2	10,847,314	5
정보서비스업	837,713	12	1,426,943	8	564,135	7
종합 건설업	1,973,204	2	3,073,020	1	6,432,111	2

<표 4-5: 계속> SK의 영위 업종별 매출과 소속회사 현황

(단위:백만원)

업 종	2002년		2007년		2012년	
	매출액	계열사	매출액	계열사	매출액	계열사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609	1			21,017	2
출판업			31,485	1	53,750	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619,101	1
코크스, 연탄 및 석유 정제품 제조업	14,114,862	1			54,444,250	5
통신업	6,314,817	3	10,846,041	2	15,574,872	4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13,237	4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0	2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21,325,046	7
매출 총합계	50,319,254		70,479,026		155,246,678	
계열사 합계	62		57		94	

제2절 SK 기업집단의 사회연결망 분석 결과

본 절에서는 SK 기업집단의 소유구조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위해 사회연결망 분석을 이용하였다. 분석기간은 외환위기 이후 최근 3대 정권(1998년~2012년)중 각 정권 말인 2002년, 2007년, 2012년을 분석 시점으로 SK의 소유구조를 분석하고 정부의 재벌정책에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비교했다. 분석에 사용된 주요 지표에는 연결정도중심성(degree centrality), 근접중심성(closeness centrality), 매개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이 있다.

1. 연결정도중심성(Degree Centrality)

다음의 <표 4-3>는 각 측정 연도별 연결정도중심성이 높게 나타난 기업집단을 정리한 것이며, 연결정도 중심성이 0이상인 기업집단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연결정도중심성은 중심성 index 중에서 소유구조의 형태를 나타내는 가장 단순한 index이다. 따라서 이 수치는 그룹 내의 계열사를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지, 또는 소유되고 있는지의 정도를 보여준다. 또한 연결정도중심성에 대한 연결망 현황은 2012년을 중심으로 <그림 4-5>과 같다.

연결중심성은 기업집단 내의 한 계열사가 기업집단 내의 다른 계열

사의 대주주인 경우(내향중심, in- degree)와, 그 계열사의 대주주가 기업집단 내의 다른 계열사인 경우(외향중심, out - degree)를 기준으로 한 중심성을 나타낸다. 이 index는 직접적인 연결정도만을 나타내기 때문에 전체적인 중심성만을 파악하는 한계가 있지만, 한 계열사가 기업집단 내의 다른 계열사와 대주주의 관계인 정도를 측정하는데 유용하다. 즉 단순히 한 계열사가 주식소유의 관계로 다른 계열사와 연결된 정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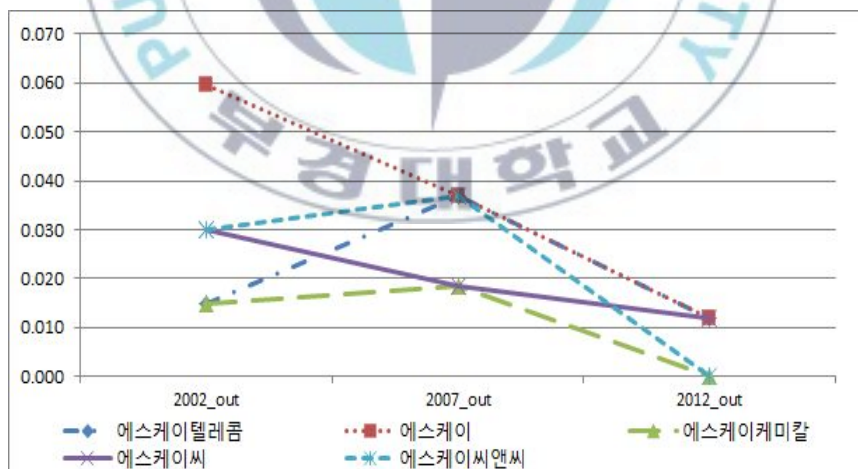
측정 연도별로 수치를 살펴보면, 2002년도에 비해 2007년, 2012년도에 중심성 값이 모두 감소하는 추세이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연도에 상관없이 외향중심성보다 내향중심성이 높게 나타났다. 표에서 높은 연결중심성 값을 보인 계열사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연도에 상관없이 이미 어느 정도 성장해 있으면서 그룹의 주력업종인 계열사들을 중심으로 연결중심성 값이 높고, 앞으로 그룹 내에서 성장시키고자 하는 계열사들을 중심으로 내향중심성 값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계열사의 성장 여부와 소유구조와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결과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SK텔레콤, SK, SK케미칼, SKC, SKC&C 모두 그룹 내에서 핵심적인 사업영역을 확보하고 있는 중심성 높은 회사들이다. SKC&C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은 2007년 이후 연결정도중심성이 크게 낮아 졌는데, 이는 SK그룹이 금융위기를 거친 후 지배권 정비와 사업부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SKC&C를 새로운 지주회사 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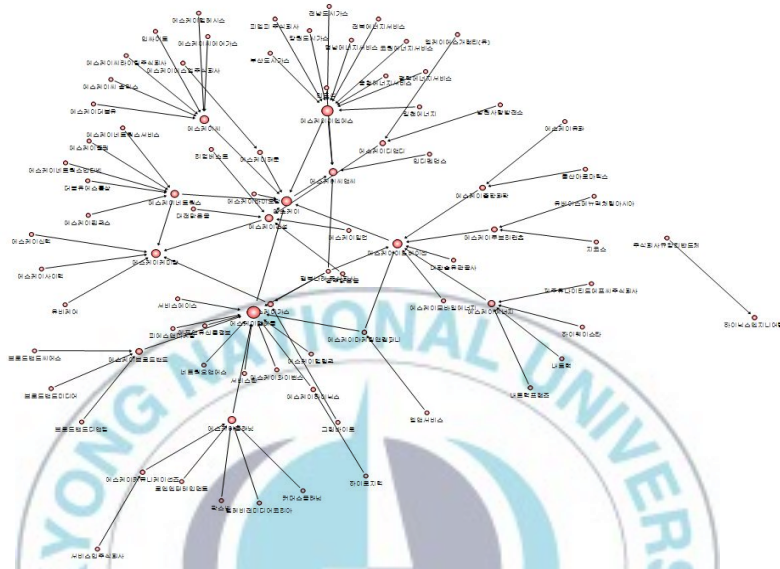
로 전환해 가는 과정이라 판단된다.



<그림 4-3> SK의 연결정도중심성 변화: 내향중심



<그림 4-4> SK의 연결정도중심성 변화: 외향중심



<그림 4-5> 2012년 연결정도중심성으로 도출한 연결망

<표 4-6>에서 (in degree)중심으로 상위 6개 기업이 측정 시기별로 모두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2012년에 상위권 기업은 그대로이나 그 수치가 크게 떨어졌다. 소유구조 측면에서 주력 회사를 중심으로 분석하면, 지주회사 SK의 2002년,2007년 수신도수(화살표 수신, in degree)는 11이었으나, 2012년 7로 감소했다. 통신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SK텔레콤은 SK그룹 내 주력 업종으로 성장함에 따라 수신도수는 기간 중 11을 유지했다. 전기, 가스업종의 지배회사인 SK이엔에스 역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계열 회사의 특성으로 수신도수 10을

유지했다. 전체적으로 연결정도중심성 측정치와 내부지분율을 그래프로 나타낸<그림 4-3>와 <그림 4-4>에서도 2002년에서 2007년까지 정보 후 2012년까지 수치가 크게 떨어진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4-6> SK의 연결정도중심성 측정현황

기업집단(n=69)	2002		기업집단(n=55)	2007		기업집단(n=85)	2012	
	in	out		in	out		in	out
에스케이텔레콤	0.254	0.015	에스케이텔레콤	0.222	0.037	에스케이텔레콤	0.143	0.012
에스케이	0.209	0.060	에스케이	0.204	0.037	에스케이이엔에스	0.119	0.024
에스케이글로벌	0.149	0.060	에스케이이엔에스	0.185	0.019	에스케이	0.095	0.012
에스케이엔론	0.149	0.015	에스케이네트웍스	0.167	0.019	에스케이이노베이션	0.083	0.012
에스케이씨	0.134	0.030	에스케이씨	0.148	0.019	에스케이케미칼	0.071	0.000
에스케이케미칼	0.104	0.015	에스케이케미칼	0.111	0.019	에스케이씨	0.071	0.012
에스케이씨앤씨	0.075	0.030	에스케이씨앤씨	0.074	0.037	에스케이플래닛	0.060	0.012
에스케이건설	0.075	0.045	아이에이치큐	0.056	0.019	에스케이씨앤씨	0.060	0.000
에스케이해운	0.060	0.045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0.037	0.037	에스케이건설	0.060	0.024
위커힐	0.030	0.075	에스케이증권	0.037	0.037	에스케이네트웍스	0.060	0.024
전남도시가스	0.030	0.015	대한도시가스	0.019	0.019	에스케이에너지	0.048	0.012
에스케이증권	0.030	0.045	에스케이인천정유	0.019	0.019	에스케이브로드밴드	0.036	0.012
에스케이(주)	0.015	0.000	에스케이해운	0.019	0.056	에스케이디앤디	0.024	0.012
에스케이글로벌(주)	0.015	0.000	에스케이텔링크	0.019	0.019	에스케이루브리컨츠	0.024	0.012
에스케이씨앤씨(주)	0.015	0.000	대한도시가스엔지니어링	0.000	0.019	에스케이가스	0.024	0.012
부산도시가스	0.015	0.030	대한송유관공사	0.000	0.037	에스케이종합화학	0.024	0.012
대한도시가스(주)	0.015	0.000	부산도시가스	0.000	0.019	에스케이하이닉스	0.012	0.012
에스케이엔론(주)	0.015	0.000	서울음반	0.000	0.019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0.012	0.012
에스케이임업	0.015	0.045	아이필름코퍼레이션	0.000	0.019	에스케이마케팅애크퍼니	0.012	0.024
강원도시가스	0.015	0.030	에어크로스	0.000	0.019	에스케이해운	0.012	0.012
대한도시가스	0.015	0.015	엔트리브소프트	0.000	0.019	하이닉스엔지니어링	0.012	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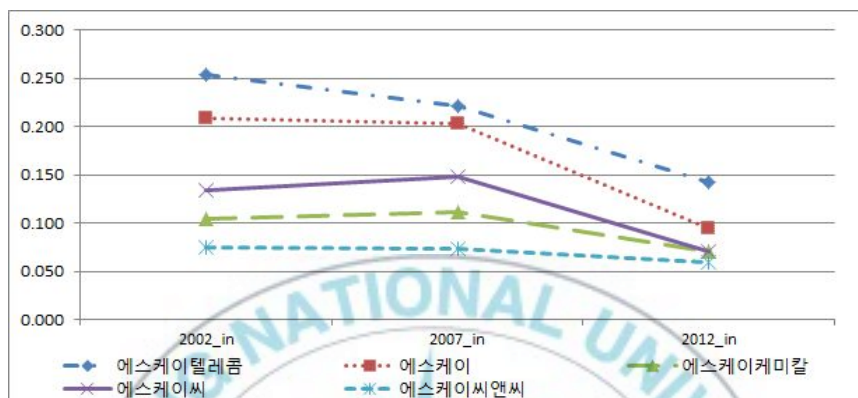
2. 근접 중심성(Closeness Centrality)

근접중심성은 연결중심성을 보완한 것인데, 한 계열사에서 다른 계열사로의 소유의 경로를 기준으로 측정한다. 즉 근접중심성 값이 높은 계열사는 그 재벌 내의 소유구조에서 중심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의 <표 4-7>는 근접 중심성이 0이상인 기업집단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근접중심성에 대한 연결망 현황은 2012년을 중심으로 <그림 4-8>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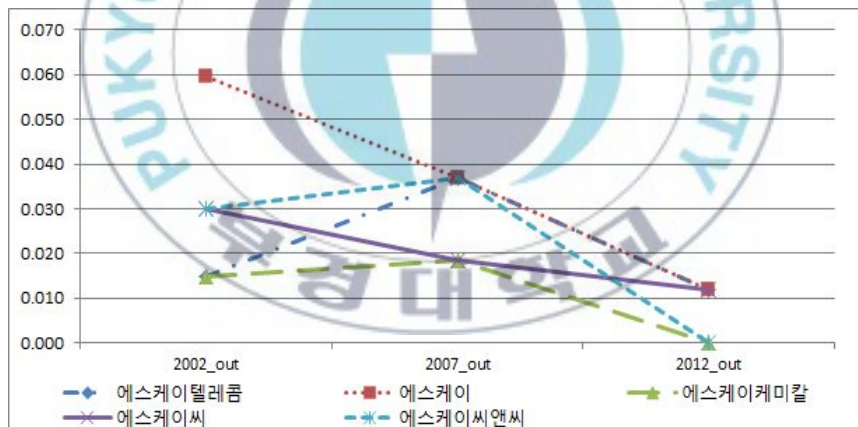
수치를 살펴보면, 2002년, 2007년도에 각 계열사들의 근접 중심성은 크게 차이가 없는 반면, 2012년도를 비교하였을 때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런 차이를 나타낸 것은, 각 계열사들 사이의 주식소유 관계가 상당 부분 분산되었기 때문이다. 에스케이(주)를 제외하고는 매년 순위가 바뀌고 근접중심성 값이 낮아졌다. 측정 시기마다 계열사 간 중심성의 차이는 미미하지만 측정 시기별로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는 갈수록 소유주식의 관계가 완화되었음을 나타낸다.

근접중심성에서도 측정 수치가 높은 5개사는 SK텔레콤, SK, SK케미칼, SKC, SKC&C로 모두 그룹 내에서 핵심적인 사업영역을 확보하고 있는 중심성 높은 회사들이다. 역시 SKC&C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은 2007년 이후 연결정도중심성이 크게 낮아 졌는데, 연결정도중심성에서와 같은 이유로 SK그룹이 SKC&C를 중심으로 새로운 지주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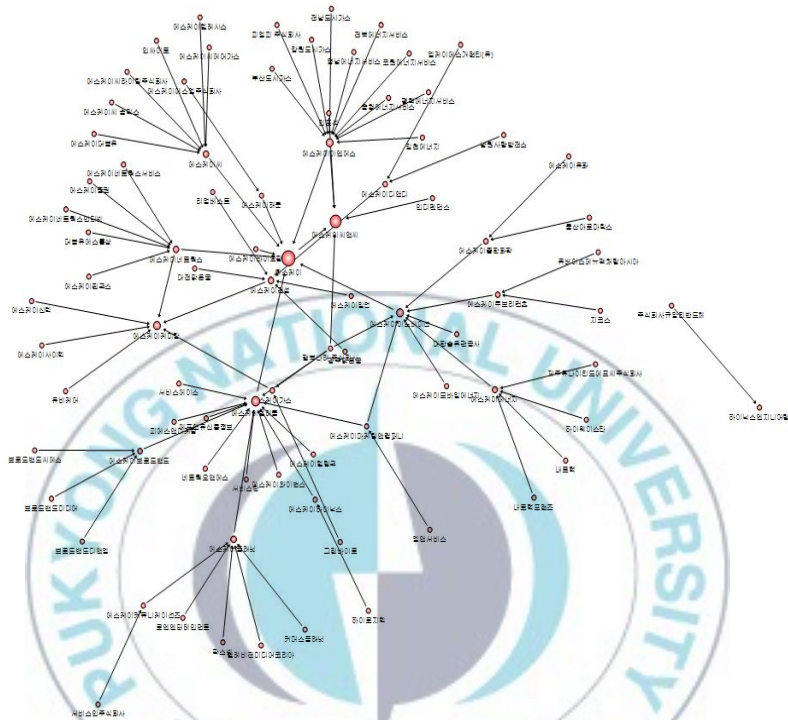
사 체제로 전환해 가는 과정이라 판단된다.



<그림 4-6> SK의 근접중심성 변화: 내향중심



<그림 4-7> SK의 근접중심성 변화: 외향중심



<그림 4-8> 2012년 근접중심성으로 도출한 연결망

<표 4-7>에서 (in closeness)중심으로 상위 6개 기업이 측정 시기 별로 모두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2012년에 상위권 기업은 그대로이나 그 수치가 크게 떨어졌다. 소유구조 측면에서 분석하면, 지주회사 SK의 2002년,2007년 수신도수(화살표 수신, in closeness)는 11이었으나, 2012년 6로 감소했다. 통신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SK텔레

콥은 2007년 11에서 2012년에는 12로 1개의 계열사가 추가 되었다. 전기, 가스업종의 지배회사인 SK이엔에스는 수신도수 10을 유지했다. 전체적으로 근접중심성 측정치와 내부지분율을 그래프로 나타낸<그림 4-6>와 <그림 4-7>에서도 2002년에서 2007년까지 횡보 후 2012년까지 수치가 크게 떨어진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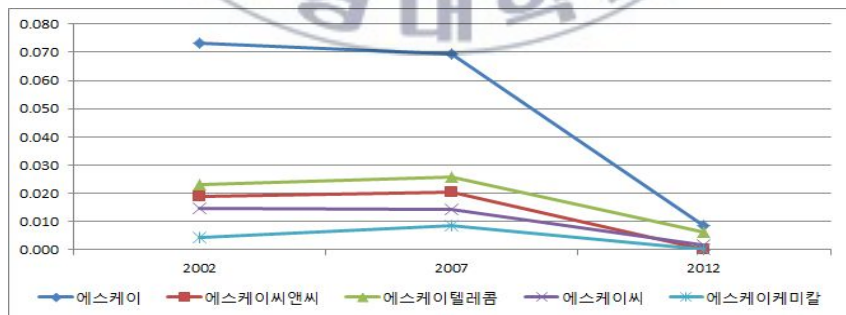
<표 4-7> SK의 근접중심성 측정현황

기업집단(n=69)	2002		기업집단(n=55)	2007		기업집단(n=85)	2012	
	in	out		in	out		in	out
에스케이	0.449	0.081	에스케이	0.500	0.058	에스케이	0.397	0.012
에스케이씨	0.373	0.060	에스케이네트웍스	0.358	0.042	에스케이씨앤씨	0.308	0.000
에스케이케미칼	0.357	0.045	에스케이씨앤씨	0.355	0.042	에스케이텔레콤	0.180	0.016
에스케이건설	0.341	0.076	에스케이증권	0.342	0.042	에스케이케미칼	0.132	0.000
에스케이씨앤씨	0.321	0.060	에스케이텔레콤	0.338	0.051	에스케이이노베이션	0.122	0.016
에스케이텔레콤	0.301	0.055	에스케이씨	0.309	0.042	에스케이이엔에스	0.119	0.024
에스케이글로벌	0.296	0.076	에스케이이엔에스	0.187	0.048	에스케이씨	0.071	0.016
에스케이해운	0.272	0.064	에스케이케미칼	0.111	0.039	에스케이건설	0.065	0.027
워커힐	0.250	0.093	아이에이치큐	0.056	0.044	에스케이플래닛	0.061	0.018
에스케이임업	0.195	0.067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0.037	0.057	에스케이네트웍스	0.060	0.027
에스케이엔론	0.154	0.060	에스케이텔링크	0.033	0.044	에스케이에너지	0.048	0.018
전남도시가스	0.034	0.050	에스케이해운	0.019	0.067	에스케이브로드밴드	0.036	0.018
에스케이증권	0.030	0.071	에스케이인천정유	0.019	0.048	에스케이디앤디	0.024	0.024
대한도시가스(주)	0.020	0.000	대한도시가스	0.019	0.043	에스케이루브리컨츠	0.024	0.018
에스케이엔론(주)	0.020	0.000	포항도시가스	0.000	0.043	에스케이가스	0.024	0.012
에스케이(주)	0.015	0.000	팍스넷	0.000	0.044	에스케이종합화학	0.024	0.018
에스케이글로벌(주)	0.015	0.000	티유미디어	0.000	0.044	에스케이하이닉스	0.012	0.018
에스케이씨앤씨(주)	0.015	0.000	케이파워	0.000	0.048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0.012	0.019
부산도시가스	0.015	0.030	충남도시가스	0.000	0.043	에스케이마케팅앰컴퍼니	0.012	0.027
강원도시가스	0.015	0.058	청주도시가스	0.000	0.043	에스케이해운	0.012	0.016
대한도시가스	0.015	0.050	전남도시가스	0.000	0.043	하이닉스엔지니어링	0.012	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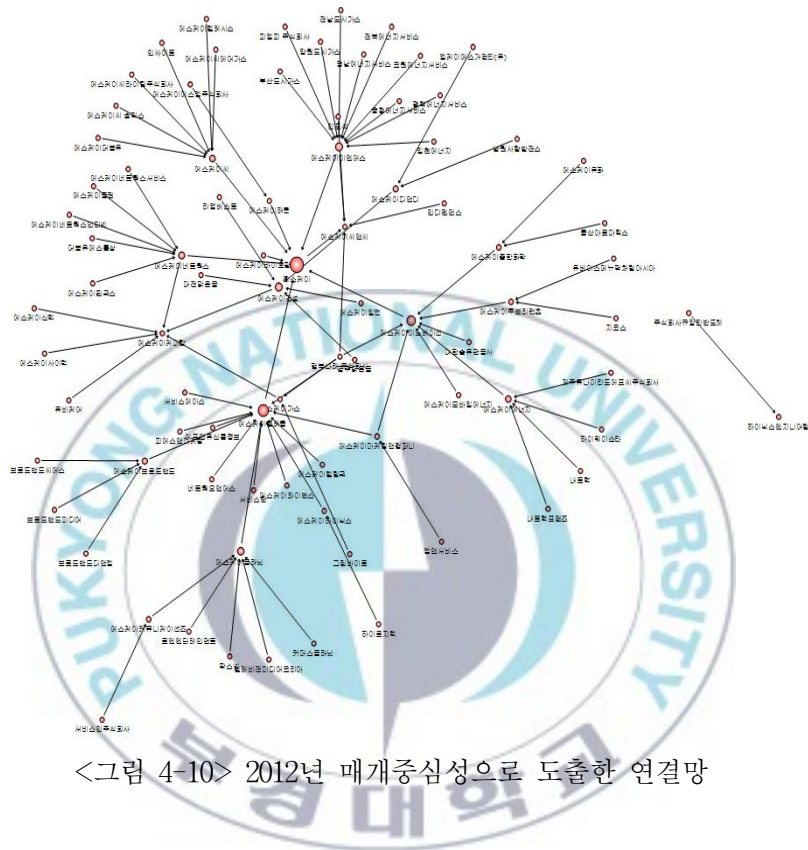
3. 매개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

매개중심성은 소유하는 계열사들의 중간 다리 역할의 정도를 나타낸다. 매개중심성이 가지는 의미는 최근 기업집단에서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낮아지면서 파악하기 어려운 실질적인 소유구조를 드러나게 해준다. 매개중심성 값이 높을수록 주변 계열사들의 소유에 연결점 역할을 크게 한다. 다음은 매개중심성이 0이상인 기업집단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매개중심성에 대한 연결망 현황은 2012년을 중심으로 <그림 4-10>과 같다.

매개중심성 측정 결과를 보면 2007년에 측정 수치가 2002년과 2012년에 비해 높았는데, 이는 소버린 사태를 지나면서 2005년을 기점으로 계열사수가 50개로 급감했었고 그로 인해 실질적인 지배회사로의 집중이 되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그림 4-9> SK의 매개중심성 변화



<그림 4-10> 2012년 매개중심성으로 도출한 연결망

<표 4-8>에서 상위 6개 기업이 측정 시기별로 2002년과 2007년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고 2012년 크게 감소했다. 소유구조 측면에서 분석하면, 지주회사 SK와 통신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SK텔레콤, 전기, 가스업종의 지배회사인 SK이엔에스는 모두 높은 수신 도수를 유지하였으나 2012년 급격히 감소했다. 전체적으로 매개중심성 측정치와 내부

지분율을 그래프로 나타낸<그림 4-9>에서도 2002년에서 2007년까지
횡보 후 2012년까지 수치가 크게 떨어진 것을 확인 할 수 있다.이는
특징적으로 직접 소유하는 지분이 크게 떨어 졌음에도 지배력은 여전
함을 의미한다.



<표 4-8> SK의 매개중심성 측정 현황

기업집단(n=69)	2002	기업집단(n=55)	2007	기업집단(n=85)	2012
에스케이	0.073	에스케이	0.070	에스케이	0.009
에스케이건설	0.032	에스케이텔레콤	0.026	에스케이텔레콤	0.006
에스케이엔론	0.023	에스케이이엔에스	0.023	에스케이이노베이션	0.004
에스케이텔레콤	0.023	에스케이씨앤씨	0.020	에스케이건설	0.003
에스케이씨앤씨	0.019	에스케이증권	0.019	에스케이이엔에스	0.003
에스케이글로벌	0.017	에스케이씨	0.014	에스케이플래닛	0.003
워커힐	0.016	에스케이케미칼	0.009	에스케이네트웍스	0.002
에스케이씨	0.015	에스케이네트웍스	0.008	에스케이에너지	0.002
에스케이케미칼	0.004	아이에이치큐	0.006	에스케이씨	0.002
에스케이해운	0.004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0.003	에스케이브로드밴드	0.001
에스케이증권	0.004	대한도시가스	0.002	에스케이디앤디	0.001
대한도시가스	0.002	에스케이해운	0.002	에스케이루브리컨츠	0.001
에스케이가스	0.002	에스케이인천정유	0.001	에스케이종합화학	0.001
부산도시가스	0.000	대한도시가스엔지니어링	0.000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0.001
에스케이임업	0.000	대한송유관공사	0.000	에스케이마케팅애크퍼니	0.001

제5장 결론

제1절 연구결과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SK그룹 각 계열사의 지분율을 자료로 사용하여, 각 계열사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를 파악하고, 계열사 간의 내부 지분율을 통해 SK그룹의 소유 집중 현실이 어떠하며 또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위해 사회 연결망 분석기법을 응용하여 기업집단 SK의 소유구조를 분석하였다. 연구표본은 2012년 4월 기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해 있는 소속 계열사들이며, 분석대상 기간은 2002년부터 2012년까지이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심성 지표 세 가지에서 모두 과거에 비해 중심성이 약화되었고, 소유구조에서도 배제된 기업들은 증가했으나 개별 기업들을 살펴보면, 그룹 내의 주력업종이라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소유구조가 다시 위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그 원인은 여러 차례 금융위기와 그에 따른 정부의 정책, 또는 변화한 시장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한 기업의 구조조정이라 생각된다.

둘째, 2002년에는 그룹 총수인 동일인(최태원)의 지분은 2.51%였으나 2007년 1.1%, 2012년도에는 0.81%로 그 비중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또한 2002년도에는 계열사들의 내부지분소유를 통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었으나 2007년, 2012년도에는 전체적인 내부지분보유율이 다소 약화되었다. 그러나 특수관계인 지분은 2002년 0.60%에서 2012년 1.24%로 크게 늘어났다. 직접소유의 비율이 감소함으로써 중심성이 큰 쪽으로 감소했으나 기업집단 내에서는 중심성은 높다. 즉, 총수일가가 중심성이 높으면서 주력업종의 중심인 SK케미칼, SKC, SK E&S와 지주회사인 SK(주) 등을 소유함으로써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간접소유의 방식이 증가하고 있다.

셋째, SK그룹 소유구조의 변화를 사회연결망분석을 통해 검토해 본 결과, 주력업종과 그 계열사들의 전체적인 현황을 그림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즉 사업구조의 변화로 소유구조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지주회사인 SK(주)와 SK C&C 그리고 주력 업종에서 중심성이 높은 SK텔레콤, SK E&S, SK케미칼이 중간 지주회사 역할을 하면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었다.

전술한바와 같이 SK그룹은 동일인 최태원 회장 일가가 보유한 지분이 0.81%에 수준이지만 내부지분율은 50%에 달한다. 1%도 안 되는 지분으로 그룹 절반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유구조로 인해 과거 소버린 사태, SK글로벌 사태, 최태원 회장의 구속 수감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지분구조를 강화하는 자본 이동 과정에서 나온 결과인 것이다.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다각화하며 사업구조를 재편하던 SK그룹은 소버린과 같은 외국자금의 공격을 대비하고 회사가치를 올리기 위해 최태원 회장의 지분확보를 해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이 지배력 강화에 중요한 전략이었다. 지주회사 체제의 SK그룹은 소유구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도입한 지주회사제도가 오히려 지배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비춰지는 문제를 갖고 있다. 적은 지분으로 다각화 된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고 출자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총수는 유동성 위험과 함께 합리적인 방법의 자본 조달을 위해 고민해야 하겠다.

제2절 한계 및 향후연구방향

본 연구는 SK그룹 소유구조를 사회연결망 분석 기법을 통해 그 변화의 정도와 특성을 분석해 보았다는 데에 그 의의를 둘 수 있겠다.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연구 방법에 있어 소유구조 분석에서 사용된 사회연결망분석 기법에서 측정 지표가 세 가지에 머물렀다는 점과 연구 표본인 SK그룹의 계열사 지분율만으로 소유구조를 분석했다는 한계가 있다.

연구의 범위에 있어서는 표본으로 선정된 SK그룹은 사업구조의 다각화와 매출액 규모에서 국내 대표 기업집단임에는 틀림없으나 비교

기업집단을 함께 연구 되지 않았다. 또 기존 연구가 2년 내지 5년의 기간이었으나 본 연구는 10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러나 기업집단을 연구하는데 있어 10년의 기간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한계점을 고려하여, 향후 연구방향은 기업집단 간 비교 대상을 확대하고 분석 기간을 확장하며, 다양한 측정 지표와 분석 도구를 활용해,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모든 기업집단의 소유 구조와 사업 구조 그리고 기업집단의 성과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층적으로 연구해볼 필요가 있겠다.



<참고문헌>

국내 문헌

- 강민정 (2001), 「경제위기 이후 한국 재벌의 소유구조 변화 분석-계열사간 내부지분 변화에 대한 연결망 분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원·신현한·장진호 (2005),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유-지배 괴리도와 기업가치 및 경영성과 간의 관계분석」, 재무연구 제18권 2호.
- 강성부·최종원·변정혜·김상훈 (2012), 「한국기업의 지배구조」, 동양증권리서치
- 강형철·박경서·장하성 (2006), 「한국상장기업에 있어 지배주주 지분율의 결정요인: 기업가치와 통제권간의 선택」, 증권학회지 제35권 6호.
- 강영철·빈기범·조성훈·윤정선 (2007), 「기업집단 지배-소유 괴리 측정에 관한 연구: 임계지배권 방법을 중심으로」, 한국증권연구원.
- 강신일 (1991),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연구」, 연구총서, 한국경제연구원.

- 강형철·박경서 (2011), 「기업의 소유구조와 상장의사결정」, 재무연구 제24권 제1호.
- 공병호 (1994), 「한국 재벌의 소유구조에 관한 연구」, 경제학연구 제42집 제3호.
- 공정거래위원회 (2011), 「공정거래백서」, 공정거래위원회.
- 김현중(2012), 「한국 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역사적 영향요인 고찰 및 시사점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 김진방 (2005), 「재벌의 소유구조」, 나남.
- 김용학 (2010), 「사회연결망 분석」, 박영사.
- 김현중 (2006), 「기업성과에 대한 소유지배구조의 영향분석: 정부지배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를 중심으로」
- 남상준 (2001), 「기업소유구조가 기업가치 및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노석민 (2005),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 재벌기업을 중심으로」, 한국기업지배구조원.
- 문상호 (1996), 「한국의 경제발전과 재벌론」, 세경사.
- 박지영 (1991), 「소유구조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세진 (2010), 「글로벌 경쟁시대의 경영전략」, 박영사.
- 조동성 (2006), 「21세기를 위한 전략경영」, 아이비에스.
- 조성천 (2009), 「KOSPI기업의 소유구조와 기업가치의 상호관계

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차영주 (2001), 「코스닥 벤처 기업의 투자 전략과 성과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두영 (2007), 「한국 기업집단의 연결망과 기술혁신: 밀도와 중앙성을 중심으로」, 부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최충규 (2008), 「기업집단 소유구조의 균형모형」, 경제학연구 제56집 제2호.

한국기업지배구조원 (2012), 「기업지배구조 백서2012」, 한국기업지배구조원.

국외 문헌

Berle.A.A and G.means (1932), 「The Morden Corporation and Private Property」, New York : The Macmillian Co.

Chang (1999), 「Privately owned social structures : institutionalization-network contingency in the Korean Chaebol」, Thesis(doctoral) University of Chicago.

La Porta, R.&Lopez-De-Silanes, F. and A. Shleifer (1999), 「Coporate Ownership Around the World」, Journal of Finance, 56(2).

Jensen, M. and W. Meckling (1976), 「The Theory of the Firm: Managerial Behavior, Agency Costs and Ownership Structure」,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부 록> 기업집단 SK의 업종별 매출현황

<부표 1> 기업집단 SK의 영위업종별 소속회사 매출액 현황

(단위:백만원)

업종 및 회사명	2002년	2007년	2012년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106,012
(주)하이닉스엔지니어링			106,01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82	53
SK더블유(주)			53
에콜그린(주)		182	
(교육 서비스업)			10,424
(주)하이닉스인재개발원			10,424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234,869	268,807	518,541
SK증권(주)	234,869	268,807	518,541
(금융업)	14,266		
SK캐피탈(주)	0		
SK투자신탁운용(주)	14,266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814
인싸이토(주)			1,814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113	181,334	103,334
(주)에어크로스	1,113	21,446	
SK이엔에스(주)		159,888	
인포섹(주)			88,015
주식회사큐알티반도체			15,319
(기타 제품 제조업)			28,127
SKC라이팅주식회사			28,127
(농업)	0		
(주)정지원	0		
(도매 및 상품중개업)	19,912,889	30,351,454	32,970,345
(주)위즈위드코리아	1,036		

<부표 1> 기업집단 SK의 영위업종별 소속회사 매출액 현황

(단위:백만원)

업종 및 회사명	2002년	2007년	2012년
(주)케어베스트	21,215		
내트릭(주)			69,007
더블유에스통상(주)			3,078
SK(주)		23,651,503	
SK가스(주)	1,840,997	2,510,128	5,470,289
SK글로벌(주)	18,036,332		
SK네트웍스(주)			26,224,419
SKC티에이(주)		4,859	
SK인천정유(주)		4,136,624	
엠알오코리아(주)		48,340	
오일체인(주)	29		
은광가스산업(주)	13,280		
피에스앤마케팅(주)			1,078,668
행복나래 주식회사			124,884
(방송업)		171,231	4,919
(주)아이에이치큐		47,815	
(주)아이필름코퍼레이션		7,541	
(주)와이티엔미디어		20,623	
(주)인디펜던스		6,496	
텔레비전미디어코리아(주)			4,919
티유미디어(주)		88,756	
(보험 및 연금업)	1,493,566		
SK생명보험(주)	1,493,566		
(부동산업)			418,615
리얼베스트(주)			18,699
SK디앤디(주)			93,236
SK핀크스(주)			50,880
엠케이에스개런티(유)			255,800
(사업시설 관리 및 조정 서비스업)			246,086
네트웍오앤에스(주)			199,653
브로드밴드디앤엠(주)			46,433
(사업지원 서비스업)	15,780	42,900	469,347
(주)하이스텍			92,235
글로벌신용정보(주)	15,780	42,900	

<부표 1> 기업집단 SK의 영위업종별 소속회사 매출액 현황

(단위:백만원)

업종 및 회사명	2002년	2007년	2012년
브로드밴드씨에스(주)			73,935
서비스에이스(주)			129,350
서비스탑(주)			123,366
SK신택(주)			0
에프앤유신용정보(주)			50,461
(소매업; 자동차 제외)	8,995		26,198
엘씨앤씨 주식회사			26,198
엠알오코리아(주)	8,995		
하이웨이스타(주)			0
(수리업)			152,839
SK네트웍스서비스(주)			152,839
(수상 운송업)	1,563,766	1,815,482	2,260,366
스텔라해운(주)	38,222	39,979	
SK에스엘주식회사			40,604
SK해운(주)	1,525,544	1,775,503	2,219,762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21,314	20,245	56,721
(주)SK와이번스	21,314		
엔즈개발(주)			0
SK와이번스(주)		20,245	35,998
제주유나이티드에프씨주식회사			20,723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171,842
(주)로엔엔터테인먼트			167,176
(주)인디펜던스			4,666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83,678	145,955	218,179
(주)대한송유관공사	83,678	145,955	218,179
(음식점 및 주점업)	174,030	283,516	
(주)위커힐	173,318	283,516	
베넥스인터내셔널(주)	712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503,405	2,704,249	35,022
(주)인투젠		11,655	
SK바이오팜			35,022
SK사이텍(주)		38,274	
SKC(주)	675,466	1,211,821	
SKC씨미디어(주)		43,399	

<부표 1> 기업집단 SK의 영위업종별 소속회사 매출액 현황

(단위:백만원)

업종 및 회사명	2002년	2007년	2012년
SK엔제이씨(주)	10,029	23,890	
SK유씨비(주)	27,853		
SK유티스(주)		5,524	
SK유화(주)		497,229	
SK제약(주)	42,715		
SK케미칼(주)	747,342	872,457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15,897,080	574,322
스피드모터스 주식회사			105,770
SK네트웍스(주)		15,784,019	
엔카네트웍스(주)		113,061	468,552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1,591,685	2,727,723	4,534,327
(주)남원사랑발전소			953
(주)부산도시가스	343,044	596,737	1,050,112
(주)충남도시가스	196,745	326,049	
강원도시가스(주)	30,643	49,997	110,501
구미도시가스(주)	135,381	204,452	
대한도시가스(주)	557,839	835,792	
아미파워(주)			24,324
SK엔론(주)	26,726		
SK이엔에스(주)			407,948
SK전력(주)	0		
영남에너지서비스(주)			788,750
익산도시가스(주)	30,794	59,440	
익산에너지(주)	19,488		
전남도시가스(주)	62,876	81,682	145,378
전북에너지서비스(주)			145,518
청주도시가스(주)	92,456	172,622	
충청에너지서비스(주)			462,827
케이파워(주)		259,180	
코원에너지서비스(주)			1,398,016
평택에너지서비스(주)			0
포항도시가스(주)	95,693	141,772	
피엠피 주식회사			0
(전기장비 제조업)		23,312	18,959

<부표 1> 기업집단 SK의 영위업종별 소속회사 매출액 현황

(단위:백만원)

업종 및 회사명	2002년	2007년	2012년
SK모바일에너지(주)		23,312	18,959
(전문서비스업)			1,425,453
SK(주)			772,704
SK마케팅앤컴퍼니(주)			652,749
(전문직별 공사업)	16,677	71,418	
(주)대한도시가스엔지니어링		16,013	
(주)아페론		55,405	
대한도시가스엔지니어링(주)	10,964		
부산도시가스개발(주)	5,713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442,016	396,649	10,847,314
(주)에이엔티에스			67,284
SKC 솔믹스(주)			90,659
SK이텔레시스	91,230		
SK이텔레시스(주)		354,501	423,419
SK이텔레텍(주)	338,757		
SK하이닉스(주)			10,188,162
이노에이스(주)	12,029	42,148	
주식회사 실리콘화일			77,790
(정보서비스업)	837,713	1,426,943	564,135
(주)넷즈고	42,600		
(주)모비아	1,238		
(주)아이윙즈	543		
(주)엔트리브소프트		12,161	
(주)엠펙스		42,561	
(주)커머스플래닛			74,982
(주)팍스넷		31,320	33,004
더컨텐츠컴퍼니(주)	4,673		
베스케어(주)	0		
브로드밴드미디어(주)			66,526
빌플러스(주)	0		
서비스인주식회사			6,225
스마틱(주)	0		
SK네트웍스인터넷(주)			48,586

<부표 1> 기업집단 SK의 영위업종별 소속회사 매출액 현황

(단위:백만원)

업종 및 회사명	2002년	2007년	2012년
SK이미디어(주)	0		
SKC&C(주)	754,305	1,107,910	
SK아이미디어(주)		0	
SK커뮤니케이션즈(주)		184,719	262,149
엔카네트웍스(주)	3,976		
엠앤서비스(주)			72,663
오케이캐쉬백서비스(주)		22,239	
와이더텐닷컴(주)	25,271		
인포섹(주)	5,107	26,033	
(종합 건설업)	1,973,204	3,073,020	6,432,111
SK건설(주)	1,950,676	3,073,020	6,394,467
SK임업(주)	22528		37,644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609		21,017
(주)하이로지텍			18,107
네트릭프랜즈(주)			2,910
아이에이씨씨(주)	609		
(출판업)		31,485	53,750
(주)서울음반		31,485	
(주)유비케어			53,750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619,101
에스케이씨앤씨(주)			1,619,10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4,114,862		54,444,250
(주)지코스			43588
SK(주)	14,114,862		
에스케이루브리컨츠(주)			2,673,129
SK에너지(주)			50,201,326
SK이노베이션(주)			1,526,207
유베이스메뉴팩처링아시아(주)			0
(통신업)	6,314,817	10,846,041	15,574,872
SK브로드밴드(주)			2,302,563
SK아이엠티(주)	0		
SK텔레콤(주)	6,227,127	10,650,952	12,575,129
SK텔링크(주)	87,690	195,089	416,458
SK플래닛(주)			280,722
이리듐코리아(주)	0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13,237

<부표 1> 기업집단 SK의 영위업종별 소속회사 매출액 현황

(단위:백만원)

업종 및 회사명	2002년	2007년	2012년
그린바이오(주)			13,237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0
광주맑은물(주)			0
대전맑은물(주)			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21,325,046
SK사이텍(주)			42,522
SKC(주)			1,687,461
SKC에어가스(주)			29,103
SK유화(주)			802,707
SK종합화학(주)			17,217,145
SK케미칼(주)			1,546,108
울산아로마텍스(주)			0
매출 총 합계	50,319,254	70,479,026	155,246,678